

통합치료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통합치료학회

한국통합치료학회 임원진

회 장 : 김은연(명지대학교)

부 회 장 : 노남숙(명지대학교)

총 무 : 유현지(명지대학교)

편 집 위 원 회 : 선우현(명지대학교) 최예린(명지대학교) 손보영(선문대학교)

이아라(경상대학교) 이상진(평택대학교) 박정환(제주대학교)

서근원(대구카톨릭대학교) 임지숙(명지대학교)

이상은(명지대학교) 김향숙(명지대학교)

국제교류위원회 : 박은선(명지대학교) 서미진(호주기독교대학교)

윤 리 위 원 회 : 윤정숙(이화여자대학교) 조민자(명지대학교)

홍 보 위 원 회 : 이은경(명지대학교) 정은정(명지대학교)

최정현(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학 술 위 원 회 : 최명선(명지대학교) 강순미(백석예술대학교)

학제 간 연구위원회 : 최광현(한세대학교) 홍혜영(명지대학교) 양심영(송의여자대학교)

간 사 : 정혜전 정하은 이송민

감 사 : 문소영(명지대학교) 설혜윤(명지대학교)

<차 례>

-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가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부모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양기정 · 선우현 5
- 인지행동 예술치료가 알코올중독환자의 단주자기효능감과 변화동기에 미치는 영향
장재영 · 최명선 35
- 초기성인기의 의사소통 유형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와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효과-
박세진 · 홍혜영 55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 79

<별첨 2> 투고규정 / 82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 84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 91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가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부모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양기정 · 선우현*

도봉우리심리상담센터 ·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과 부모의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S시 D구 C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한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사전 면접과 사정 평가를 통해 두 가족을 선정하였다. 두 가족의 부모는 모두 간섭, 감독, 과잉 기대, 통제적인 양육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자녀에 대한 이해 부족과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포함하여 매주 1회, 60분씩 총 8회기를 진행하였다.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는 신체접촉, 구조화 놀이, 자유 놀이를 통해 가족들 간 상호작용 증진과 수용과 지지 속에서 문제 해결을 다양하게 경험하도록 하여 협력하는 유대감을 갖도록 돕는다. 그 결과, 가족들 간 정서적 친밀감이 늘어나 상호작용이 증진되었으며 긍정적인 가족 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가족 체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자녀들은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자기 성취감을 경험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양육 태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으로써 연구 관심이 부족한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후속 연구에 쓰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 경계선 지적 기능,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 양육 태도

* 교신저자: 선우현(johann02@naver.com)

■ 게재 신청일 : 2023년 7월 10일 ■ 최종 수정일 : 2023년 8월 13일 ■ 게재 확정일 : 2023년 8월 17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2년 교육부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14%가 느린 학습자인 것으로 추정되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하여 특수 교육과 일반교육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부처별·기관별로 사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지원 대상이 중복되거나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느린 학습자 정책 지원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증진사업, 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느린 학습자 자립 지원사업,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느린 학습자 지원 조례 제정, 교육청에서는 난독증 학생 지원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느린 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느린 학습자를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다양한 정책대안과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부처 차원의 느린 학습자 생애주기별 교육·복지·고용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제시하였다(교육부, 2022).

DSM-IV에서는 경계선 지적 기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을 지능검사 결과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1과 -2 사이인 IQ 70-85 사이에 속하는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은 읽기와 수학을 비롯하여 사회적응과 소통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따른다. 경계선 지능 아동들은 제한된 지적 능력으로 인해 상황판단 및 예측, 환경의 요구를 이해하는 능력, 경험을 회상하는 능력 등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또 친구와 관계 맺기에 서툴러 무시, 왕따 등의 대상이 되기 쉽다(정희정, 이재연, 2005). 이들은 현재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으나, 대부분 제 학년에서 요구되는 학습 수준을 습득하지 못하며 또래 관계에서 소외되고 따돌림을 당하는 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다(정희정, 2006). 그러나 부모들은 이들의 기능적인 특징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문제의 원인이 능력이 아닌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자녀를 다그치고 혼내는 일이 잦으며 무리한 학습을 요구하며 지시적이고 감독적 양육 태도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원인 때문에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부적절한 대우를 받게 될 수 있으며 부모-자녀 간 갈등 혹은 형제-자매간 갈등으로 확대되어 가족 모두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이재연, 한지숙, 2003).

부모의 양육 태도가 거부적이며 통제적일 때 아동의 공격성은 높아지며 위축 행동

과 불안한 정서가 나타나고, 부모의 양육 태도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일 때 아동의 친화적인 사회성이 발달하고 사회성숙도 및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며 문제행동 또한 낮아진다(Schaefer, 1959: 김현미, 도현심, 2004 재인용). 따라서 이상적인 양육 태도를 지닌 부모의 자녀는 자기 절제 및 조절 능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기 성취감을 증진하며 성장해 갈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아동은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면 아동의 전반적 발달 및 또래 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예서현, 2004). 하지만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녀의 학업적 성취, 또래 관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자녀가 경험하고 있는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Manzoni, 2004). 따라서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를 통해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부모-자녀 간 정서적 교류, 친밀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해 아동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자기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

1940-50년에 접어들면서 개인의 심리적 문제는 가족의 역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가족을 치료의 대상으로 하는 가족치료가 태동되었으며 개인이 속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 가족 체계를 건강하게 변화시킴으로써 개인은 치유된다(권석만, 2015).

또 Haslam(2010)은 부모와 가족을 포함한 치료적 접근이 아동 혹은 청소년들의 정서 및 행동 변화 증진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해 가족놀이치료의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하고 있다. 특히 가족놀이치료가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들의 불안도 감소시킴으로써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가족 체계의 변화를 이끄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Ariel, 1992; Schaefer, 1994; Schaefer & Koduson, 2006, 선우현, 2013. 재인용).

가족놀이치료는 가족치료와 놀이치료를 결합한 심리 치료적 방법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놀이를 통해 가족의 문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가족 간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다(김광웅 외, 2004). 또 가족의 역동을 통해 놀이가 증진되고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성취감을 경험하게 된다. 자기표현 방법이 서툰 어린 아동에서부터 표현하는 것을 거부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을 쉽고 안

전하게 노출(김광웅 외, 2004)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족놀이치료의 목적은 먼저 치료자가 가족의 역동 즉, 가족의 구조와 의사소통, 정서적 밀착에 대해 탐색한다는 것이다. 또 가족이 놀이에 참여하며 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격려하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 가족은 놀이라는 안전한 매개를 통해 문제를 비위협적으로 직면하게 되고, 가족 간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문제와 서로를 이전과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다. 또한 가족놀이치료는 놀이를 통해 문제 상황에서 새로운 길과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Sori, 2006).

최근에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족놀이 치료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성이 증명되고 있다. 발달장애아를 둔 가정, 이혼가정, 맞벌이 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 가정 등에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가족놀이치료의 효과성이 연구되었다(김유숙, 2006; 박재훈, 선우현 2012; 선우현, 김현아, 2012; 홍정애, 성영혜, 2007; O'Connor & Bravermann, 1997). 놀이라는 비언어적 상징성을 통해 가족 모두가 자연스럽게 참여하며 표현하는 것이 가능했고 상호작용 놀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났다(김유숙, 2003, 2006; 선우현, 2007, 2008).

선우현(2013)에 의하면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신뢰 관계, 자기 인식, 타인에 대한 이해,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등이 촉진되고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전 생애를 걸쳐 자녀들의 정서와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또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는 자녀 스스로 행동에 대처하는 능력을 발현하게 되고 가족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자녀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하게 하는 선우현(2013)의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를 통해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과 부모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는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는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부모 양육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S시 D구 C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한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 한 가족을 선정했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시행 전 부모 면담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 영상 녹화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연구내용과 프로그램 과정, 추후 자료 활용에 대한 동의, 중도 포기에 관한 자유의지 등이 포함된 연구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전 사정 평가로 부모-자녀 상호작용 코딩 시스템 DPICS-IV를 실시하였고 두 가족 부모 모두 간섭, 감독, 과잉 기대, 통제적인 양육 태도였다. 또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보여 본 연구 대상에 적합한 가족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대상자 가족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 1〉 A 가족의 인적 사항 및 특징

가족사항	성격	가족과의 관계
부 47세, 대졸 건설회사 근무 무교	평소 말이 적은 편이며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성향임. 강하게 훈육하는 편이며 갑자기 버럭 화를 낼 때가 있다고 하심.	자녀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으며 특히 자녀2는 SCT 검사에서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아빠' 라고 답했음. 자녀들과 소통이 적으며 정서적으로 거리가 있음.
모 40세, 대졸 어린이집 교사 기독교	유연하고 밝은 성격임. 사교적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많은 편임.	자녀들과 관계는 좋은 편이며 둘째를 더 안쓰럽게 여기고 챙기게 된다고 하심. 과도한 칭찬이나 성취 압력으로 인해 자녀들이 되려 긴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심.
자녀1 11세, 초등 4학년 재 기독교	성실하고 밝은 성격임. 모에 대한 애착이 강한 편이며 어떤 일이든 확인하고 물어보는 습관이 있음.	부모 모두에게 애착이 강한 편이며 동생에게는 '바보' 라고 자주 놀려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함. 동생에게 샘을 많이 냄.

<p>자녀2 8세 초등 1학년 재 기독교</p>	<p>전체 지능 81점.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또래 관계가 좋지 않음. 규칙이나 순서 지키기가 잘되지 않음.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하고 미숙한 태도가 특징임.</p>	<p>부를 무서워하고 형에게 지지 않으려 해 형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형과 다툼이 자주 발생함. 모에 대한 애착이 강함.</p>
--	--	--

〈표 2〉 B 가족의 인적 사항 및 특징

가 족	성격	아동과의 관계
<p>부 42세, 대졸 음료회사 근무 무교</p>	<p>긍정적이고 낙천적임. 장난스럽고 창의적인 사고가 장점임.</p>	<p>자녀와 잘 놀아주는 편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편임.</p>
<p>모 39세, 대졸 전업주부 무교</p>	<p>소극적이고 불안과 긴장감을 자주 경험하신다고 함.</p>	<p>혼자 육아를 전담하고 있어 양육 스트레스가 있으며 자녀들에게 지시적인 태도와 제한 설정이 많은 편임. 또 큰 아이와의 갈등이 많고 성향이 달라 버겁다는 표현을 하심.</p>
<p>자녀1 11세, 초등 4학년 재 무교</p>	<p>활발한 성격으로 독창적인 생각이나 활동을 좋아함.</p>	<p>부와 비슷한 성향이고 잘 맞는 편임. 동생을 비교적 잘 챙겨주고 양보를 잘해주는 편이나 짜증을 낼 때도 있다고 하심.</p>
<p>자녀2 8세 초등 1학년 재 무교</p>	<p>전체지능 71점. 유아적 사고, 충동성, 산만함으로 집중의 어려움이 있음. 언어 표현력이 부족. 타인에 대한 불안과 경계심이 있음.</p>	<p>모에 대한 애착이 강함. 모와 신체접촉을 많이 하는 편임. 형을 많이 의지하고 형의 행동을 자주 따라 함. 부와 놀다가 과몰입해 나중에는 야단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함.</p>

2. 연구 도구

가. 가족 협동화

가족 협동화는 1980년대 개발되었는데, 그 직접적인 전조는 동적 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 Burns & Kaufman, 1972)이며 처음 30초를 시작으로 점차 5초씩 줄어

들어 25초, 20초, 1초, 10초, 5초로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3초까지 시행하게 된다. 처음에는 비언어적인 상호작용 과제로 시작되어 평가자는 가족들의 반응을 관찰하게 된다. 두 번째로 가족들은 각자 원하는 크레파스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평가자의 ‘시작’ 신호에 맞춰 가족들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게 되고 ‘다음’ 신호에 따라 그림을 멈추게 하여 다음 가족이 그리도록 한다. 평가자는 가족 구성원들의 참여 태도, 서로 간의 협력 정도, 도움을 주고받는 가족들의 태도 등을 관찰하며 가족들의 상호작용을 평가한다(김광웅 외, 2004). 마지막으로 가족 협동화가 완성되면 평가자는 가족 모두와 함께 그림을 보면서 관찰한 사항들을 질문한다. 이때 가족 구성원들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며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관찰한다(김다정, 2018).

나. 가족 집짓기

가족 집짓기는 가족들이 나무 블록을 이용해 우리 가족의 집을 함께 만들어 가는 상황 속에서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을 살펴보고, 만들어 놓은 집의 형태를 보며 가족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평가한다(선우현, 2007).

가족 집짓기 실시과정은 첫째, 나무 블록들과 가족이 모여 앉아 집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나무 블록을 이용해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 가족에게 서로 의논하게 한 후 ‘우리 집’을 만들라고 지시한다. 평가자는 가족이 집을 만드는 과정과 가족이 만들어 놓은 집의 형태를 관찰한다. 둘째, 가족이 집 만들기를 완성하고 나면 가족과 함께 완성된 집을 보면서 가족 구성원이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게 집의 어느 곳이 마음에 드는지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어느 곳인지 질문하여 각자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셋째, 가족의 피드백을 다 듣고 난 후 평가자는 가족이 서로 의논하여 집의 제목을 붙이도록 한 후 마친다. 마지막으로 평가자는 집의 모습과 가족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족의 상호작용을 평가한다(선우현, 2021).

다. 부모 양육 태도 검사

임호찬(2008)이 표준화하여 개발한 부모 양육 태도 검사(PAT)를 사전과 사후 변화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부모 양육 태도 검사의 하위영역은 서로 영향을 미

치지 않고, 독립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지지 표현, 합리적 설명, 성취압력, 간섭, 처벌, 감독, 과잉 기대, 비밀관성으로 총 8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상적인 기준은 지지 표현과 합리적 설명이 75%, 간섭이 50%, 처벌이 40%, 비밀관성이 20%이며, 각 영역의 이상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10% 이내에 해당하는 범위를 이상적인 백분위 범위로 제시하고 있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S시 D구 C종합사회복지관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에게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두 가족을 선정했다.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사전, 사후 검사를 포함하여 주 1회, 60분씩 총 8회로 진행하였다. 연구 기간은 2022년 12월 03일~2023년 3월 11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 3〉 연구 절차

구 분	기 간	내 용
대상 선정	2022년 11월 01일~ 2022년 11월 30일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및 안내
사전 면담	2022년 11월 16일~ 2022년 11월 26일	프로그램 설명 및 가족의 기본정보탐색을 위한 부모 면접
사전 평가	2022년 11월 26일	부모-자녀 상호작용 평가(DPICS-IV)
사전 검사	2022년 12월 03일	사전 검사 -가족 협동화 -가족 집짓기 -부모 양육 태도 검사(PAT)
프로그램 진행	2022년 12월 10일 ~2023년 03월 11일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 6회기 프로그램 진행
사후 검사	2023년 03월 18일	사후 검사 -가족 협동화 -가족 집짓기 -부모 양육 태도 검사(PAT)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진행한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은 매회기 녹화 후 비디오 자료를 토대로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가족 협동화의 경우 과정분석, 순서분석 그리고 참여분석에 따라 상호작용의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가족 집짓기에서는 순서 없이 함께 진행되므로 과정분석과 참여분석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부모의 양육 태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과 사후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5.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선우현(2013)의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신체 놀이, 구조화 놀이, 자유 놀이라는 3가지 구성요소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사전, 사후 검사를 포함해 총 8회기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의 구성요소에 대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접촉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친밀감을 증진한다. 둘째, 구조화 놀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에게 안전한 놀이 환경으로 제공하고,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여 즐겁게 놀이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자유 놀이 과정을 통해 부모는 아동의 놀이를 반영하며 공감하는 것을 연습하고, 아동은 부모의 지지를 통해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놀이를 하고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가족의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1회기에는 사전 검사를 진행하며 가족들 간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방식을 살펴보았으며 부모에게 반영 기술과 구체적인 칭찬, 행동 묘사하는 것을 교육하여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했다.

2회기는 ‘로션 마사지’를 통해 부모는 자녀에게 로션을 발라 손 마사지를 하며 자녀의 태몽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신체접촉을 통한 정서적 친밀감을 경험하게 한다. 구조화 놀이에서 가족들의 손바닥을 이용해 ‘손바닥 세상’을 꾸미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신뢰감과 안전감을 경험하며 즐겁게 놀이할 수 있다. 만약 부모가 효과적으로 구조화하지 못한다면 진행자는 부모를 도와 진행자를 모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자유 놀이에서 부모는 자녀의 놀이에 참여하고 따라가며 행동을 묘사해주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며 반영해주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때 진행자는 부모를 격려하고 지지해 부모가 자신감을 지니고 자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3회기는 두루마리 휴지를 한 칸씩 뜯어가며 부모는 눈이 오는 장면을 연출해 자녀에게 휴지를 계속 날려 준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는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게 되고 자녀와 정서적 교류를 증진하게 된다. 또 날린 휴지 조각들을 모아 물에 적서 화이트보드 판에 던지는 놀이를 통해 자녀들은 구조화된 환경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발산 놀이를 경험하게 된다. 이후 젖은 휴지를 모아 가족들이 협력하여 조형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족 간 유대감을 증진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자유 놀이 과정을 통해 부모는 아동의 수준에 맞춰 놀이하고 아동은 부모의 배려와 수용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또 부모는 프로그램 진행 중 배운 반영 기술과 칭찬, 행동 묘사를 연습하며 아동의 놀이에 공감할 수 있고 아동은 놀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4회기는 부모와 아동이 하나가 되어 신체접촉을 할 수 있는 ‘같은 색깔 찾기’가 진행된다. 가족 구성원은 A4 라벨지를 8칸으로 나눠 서로 다른 색을 칠한 후 각자의 몸에 붙이도록 한다. 이후 가족들은 손을 잡고 동글게 서고 가족 중 한 사람이 방향을 결정하면 정해진 방향으로 돌게 된다. 이후 진행자가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파란색~”라고 하면 가족들은 같은 색을 찾기 위해 신체접촉을 하며 서로 정서적 교류를 하게 된다. 또 함께하는 과정에서 즐거움, 협력하기, 스스로 문제 해결하기 등을 경험한다. 구조화 놀이인 ‘신문지 격파 놀이’에서 부모는 자녀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녀의 놀이 수준을 이해하여 놀이를 주도한다. 이 과정에서 자녀는 부모의 수용적 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규칙과 제한을 이행하는 경험을 하며 타인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또 자유 놀이는 자녀가 선택한 놀이를 따라가며 자녀의 욕구를 이해하고 반영해주며 공감적 경청을 할 수 있다.

5회기는 ‘김밥 말기’라는 신체접촉 놀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는 번갈아 가며 이불로 신체를 감싸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온정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놀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는 눈 맞춤을 하고 이불을 흔들어주어 즐거움과 안정감을 경험하고 정서적인 접촉을 증진하도록 한다. 이러한 놀이는 양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양육과 애착을 재경험하도록 한다. 또한 ‘내 맘대로 골프’라는 구조화 놀이를 통해 자녀는 정해진 규칙을 지키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조절 능력을 발휘하게 되며 자율성과 성취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 자녀는 자유 놀이를 통해 주도적으로 놀이를 증진하게 되며 부모는 자녀를 지지하고 구체적인 칭찬을 하는 경험을 통해 가족의 상호작용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된다.

6회기는 신체접촉 놀이인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로 시작하게 된다. 가족들이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진행자가 먼저 자녀에게 다가가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며 묻는다. 대답은 “예” 또는 “아니오.”로만 할 수 있는데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진행자는 “그럼 누구를 사랑하십니까?”라고 다시 자녀에게 질문한다. 이때 자녀는 함께하고 있는 가족 중 한 명을 선택해 “나는 형을 사랑합니다.” 혹은 “나는 아빠를 사랑합니다.” 등으로 대답할 수 있다. 가족들은 서로 눈을 맞추며 접촉하는 놀이를 통해 정서적 표현을 언어로 주고받는 경험을 한다. 가족들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신체적인 접촉을 하며 가족 간 긍정적인 소통을 경험하게 된다. 구조화 놀이인 ‘풍선 배구’ 놀이를 통해 가족들은 풍선을 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정하고 풍선을 놓쳤을 때는 어떻게 할지 의논하여 규칙을 정하는 등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상호작용을 증진하게 된다. 또 자유 놀이 과정을 통해 자녀는 부모의 이해와 배려, 수용을 경험해 스스로 놀이를 증진하게 된다.

7회기는 ‘아픈 상처에 밴드 부쳐주기’를 통해 가족 간 신체접촉을 자연스럽게 하며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 또 자녀들은 부모의 수용과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할 수 있으며 부모는 자녀의 솔직한 내면을 이해하는 경험을 갖게 된다. 또 구조화 놀이인 ‘희망 낚시 놀이’는 희망이나 바람을 적은 종이에 클립을 끼워 눈을 가린 채 가족의 설명을 들어가며 낚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한다. ‘희망 낚시 놀이’를 통해 가족들은 서로의 도움으로 인해 자신의 바람을 이루는 협력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경험하게 된다. 또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존중과 사랑, 이해가 더욱 깊어지며 자녀들은 성취감을 증진하게 되어 자기 유능감을 갖게 된다. 자녀들이 선택한 자유 놀이는 부모의 수용과 지지를 통해 가족 내 안전한 체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8회기는 프로그램 참여 후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회기 때와 같은 내용으로 사후 평가를 진행한다. 프로그램 후, 가족 협동화와 가족 집짓기 평가를 통해 가족 간 언어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살펴보고 상호작용의 변화를 평가한다. 회기별 프로그램 활동 내용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4〉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 과정

회 기	제 목	목 표	내 용
1회기	사전 검사	〈사전 검사〉 -가족 협동화	가족 협동화, 가족 집짓기, 부모 양육 태도 검사(PAT)

		-가족 집짓기 -부모 양육 태도 검사 (PAT)	
2회기	손바닥 세상	-친밀감 형성 -상호작용 증진	1) 부모 교육 2) 신체접촉 놀이- '로션 바르기' 3) 구조화 놀이- '손바닥 세상' 4) 자유 놀이
3회기	하늘에서 눈이 내려요~	-친밀감 형성 -상호작용 증진 -발산과 조절 -협력하기	1) 부모 교육 2) 신체 놀이- '하늘에서 눈이 내려요.' 3) 구조화 놀이- '눈으로 만들어요' 4) 자유 놀이
4회기	벽을 뚫고 나와라~	-친밀감 형성 -상호작용 증진 -발산과 조절 -협력하기	1) 부모 교육 2) 신체 놀이- '같은 색깔 찾기' 3) 구조화 놀이- '신문지 격파 놀이' 4) 자유 놀이
5회기	우리가 놀이를 만들어요~	-친밀감 형성 -상호작용 증진 -차레, 규칙 지키기 -성취 경험	1) 부모 교육 2) 신체 놀이- '김밥 말기' 3) 구조화 놀이- '내 맘대로 골프' 4) 자유 놀이
6회기	놓치지 않아!	-친밀감 형성 -상호작용 증진 -차레, 규칙 지키기 -성취감 경험	1) 부모 교육 2) 신체 놀이-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3) 구조화 놀이- '풍선 배구' 4) 자유 놀이
7회기	희망을 낚아요~	-친밀감 형성 -상호작용 증진 -협력하기 -성취감 경험	1) 부모 교육 2) 신체 놀이- '아픈 상처에 밴드 부쳐주기' 3) 구조화 놀이- '희망 낚시 놀이' 4) 자유 놀이
8회기	사후 검사	<사후 검사> -가족 협동화 -가족 집짓기 -부모 양육 태도 검사 (PAT)	가족 협동화, 가족 집짓기, 부모 양육 태도 검사(PAT)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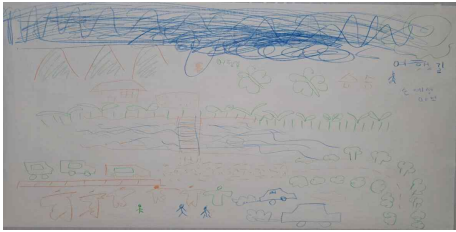

본 연구는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가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과 부모 양육 태도 변화에 관한 사례연구를 질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회기별 프로그램 활동을 녹화한 영상과 부모 면담 자료를 토대로 상호작용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에 따라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전체를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이 경험하는 현상을 파악하고 의미 단위로 구분하였다. 이후 구분된 의미 단위를 다시 검토하고 그것을 심리학적인 표현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쳤다(신경림 외, 2004). 둘째,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가족 간 상호작용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 협동화와 가족 집짓기를 실시하여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였다. 활동 과정과 종료 후에 나타난 가족 간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관찰하며 상호작용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놀이치료와 가족놀이치료 전문가의 슈퍼비전을 통해 내용을 점검받아 종합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연구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서술하였다.

가족 협동화는 과정분석, 순서분석, 참여분석을 통해 두 가족 모두 사전과 사후의 변화를 단계별로 분석하였으며 가족 집짓기는 과정분석과 참여분석 단계를 통해 가족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부모의 양육 태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부모 양육 태도 검사(PAT) 자료를 이상적인 점수와 함께 표로 제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1. 가족 협동화 분석

가. A 가족의 가족 협동화 분석

사전 검사 제목 : 여행길	사후 검사 제목 : 숲속 우리 집
	

〈그림 1〉 A 가족 사전 및 사후 가족 협동화

(1) 과정분석

사전 검사 시 부가 주도적으로 그렸으며 가족들은 협력하기보다는 주로 자신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계획이나 순서 없이 그리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 부모는 넓은 공간을 차지하며 그림을 그렸고 자녀들은 남아 있는 공간에 그림을 그리는 등 부모의 주도성이 강해 수용적으로 기다리고 격려해 주는 모습이 부족했다. 자녀들이 경쟁하면 모는 주로 자녀1에게 “*준이가 먼저 집었잖아.”라고 하며 형을 제지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 부모는 자녀들의 부정적인 정서를 이해하거나 공감해 주는 태도보다는 외면하거나 건성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후 검사에서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소통했다. 자녀들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공간을 넓게 활용했으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등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가 관찰되었다. 특히 자녀2는 시간을 잘 예측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가족들은 여유롭게 즐기는 태도를 보였다.

(2) 순서분석

사전 검사 시 부가 먼저 주황색으로 산을 그리고 그 아래 집을 그렸다. 두 번째는 자녀1이 살구색을 선택해 왼쪽 위에 태양을 그린 후 부의 그림 옆에 사람을 그렸다. 자녀1은 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며 부를 의존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다소 위축된 태도로 그림을 그리는 등 활발하고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세 번째로 자녀2의 차례가 되자 파란색으로 전지 상단에 산 모양을 연결해서 그리고 형이 그린 태양을 색칠하여 드러나지 않게 칠하였다. 네 번째로 모는 초록색으로 태양을 그리고 부가 그린 그림을 보고 의도를 알아챘으며 모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후 검사에서는 자녀2가 자신 있게 손을 들어 먼저 시작하겠다고 했으며 가운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자녀1은 파란색을 선택했고 동생이 그린 그림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태도를 보였다. 이후 그림을 본 모는 자녀1에게 지지하는 표현을 했으며 형이 자기 그림의 한 부분을 그려준 걸 알게 된 자녀2는 형에 대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조절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세 번째로 모는 초록색으로 나무를 그리고 날아가는 새를 그렸으며 모가 그림을 그릴 때 자녀2는 모의 곁에다가 기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상담사가 자기 자리에 앉도록 하자 이를 바로 수

용하며 자기의 행동을 조절하는 태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부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자녀1이 그린 물결 그림을 보고 다리를 이어주는 그림을 그리고 빈 곳에 물고기를 그려 공간을 채워주는 태도를 보였다.

(3) 참여분석

사전 검사 시 부모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많은 공간을 차지했다. 한편, 자녀1과 자녀2는 서로 경쟁하는 구도였으며 서로의 이름을 적으며 ‘바보’라고 하는 등 방해하려는 태도가 나타났다. 자녀1과 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리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나 자녀2는 가족들과 상호작용하기보다는 독단적이고 충동적으로 그리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부모님은 이러한 태도를 불편해했으나 반응하지 않았고 자녀1은 동생의 이러한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후반부로 갈수록 자녀2는 가족들의 그림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나 제목을 결정 한 후 종이에 형의 이름을 쓰고 ‘바보’라고 적으며 형에 대한 불편감을 표현하였다.

사후 검사에서는 가족들이 서로 협력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그림을 그렸으며 서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제목을 정하는 등 상호작용이 증진된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 자녀2는 사전 검사 때와 다르게 다른 가족들이 그리는 걸 유심히 관찰하고 지켜보는 태도를 보였고 충동적인 태도가 줄어들었다. 자녀1은 동생이 그린 별과 별집 그림 위에 새를 그리는 등 보완 및 협력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제목을 정할 때는 서로의 그림을 보며 “나도 그리고 싶었던 건데…”라고 하며 공감하는 표현을 하였다. 가족들은 시간이 줄어들어도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며 여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였다. 제목을 정한 후 마무리할 때 자녀들은 서로 ‘바보’라고 적었으나 갈등 상황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상황으로 전이되지 않고 이후 프로그램에 원활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나. B 가족의 협동화 분석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제목 : 사랑이 넘치는 다이아몬드공룡알	제목 : 환상의 나라



〈그림 2〉 B 가족의 사전 및 사후 가족 협동화

(1) 과정분석

사전 검사에서 가족 협동화 방법을 설명하자 가족 모두 주의 깊게 듣는 태도를 보였으나 자녀2는 몸의 움직임이 많았으며 산만함이 관찰되었다. 모는 다소 긴장된 모습이 관찰되었고 자녀1은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낮은 상황을 관찰하는 태도를 보였다. 자녀1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수동-공격적인 태도와 방어적인 태도로 자신의 욕구를 과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사후 검사에서 가족들은 지시를 잘 따르는 편이었으나 자녀1이 자녀2 보다 들뜬 기분으로 의자를 들썩이며 움직이는 태도를 보였는데 부모는 자녀들에게 착석과 경청을 지도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활동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시적인 언어표현, 감독적 태도, 부정적인 피드백 등을 하지 않았으며 자녀들을 수용하지만 집중하고 정해진 규칙을 잘 이행하도록 제안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자녀들은 후반부로 갈수록 서로 협동하거나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2) 순서분석

사전 검사 시 자녀2는 가장 먼저 빨간색을 선택해 그렸으나 주의가 산만해졌으며 모에 대한 애착을 보이며 끊임없이 말을 건네는 태도를 보였다. 두 번째로 자녀1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 앉은 채 의자를 끌고 미리 나가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상담사가 이를 제한하자 즉시 수용하고 그림을 그렸다. 세 번째로 부는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이야.”라고 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림을 그렸고 마지막으로 모는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난감했다. 또 자녀들이 “엄마는 상상력이 부족해.”라고 했으나 대응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모는 경직된 태도로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어려워했다.

사후 검사에서 자녀1은 시작하자마자 전지 가운데 가장 크게 원을 그리며 많은 영역을 차지하였고 부는 자녀1이 그린 그림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렸다. 자녀2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 먼저 나가서 그림을 그리려 했으나 상담사가 멈추도록 하자 멈춘 후 신호를 기다렸다가 확인 후 그리는 것이 가능했다. 자녀2는 이전보다 차분한 태도를 보였고 형이 많은 영역을 그려 놓아 그릴 데가 없다고 난감해했으나 수용하며 그림을 그렸다. 마지막으로 모는 천천히 걸어가서 그렸고 자녀들은 사전 검사 때처럼 모를 재촉하거나 지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모 역시 이전보다 여유 있고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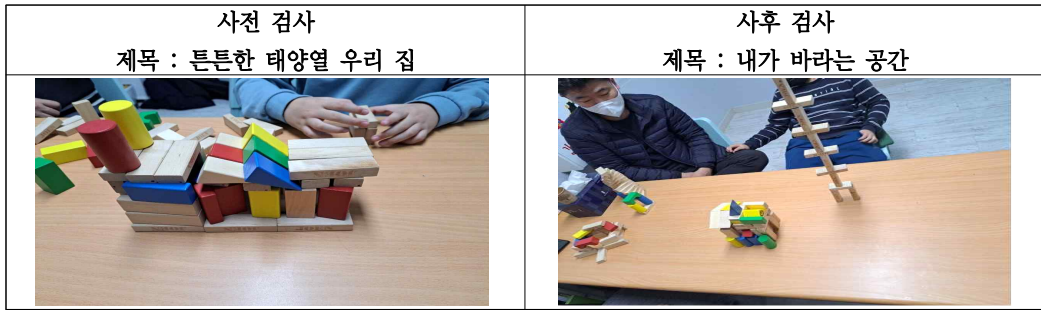
(3) 참여분석

사전 검사 시 가족들은 전반적으로 시간을 잘 이행하였고 자녀1은 시간이 갈수록 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모가 그림을 그릴 차례가 되면 자녀들이 모를 따라가서 모의 그림에 참견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모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한을 두지 않아 자녀들이 더 산만해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부모는 대체로 자녀들이 그림을 그릴 때 활동과 관련된 적절한 제한 설정을 하지 않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제목을 정할 때 자녀2는 모의 의견을 물어보았으나 시선은 다른 장난감에 가 있어 집중되지 않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때 모는 적절한 제한을 설정하지 못했고 상담사가 부모 상담 시간이나 다음 회기 시작 전 대기실에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이후 자녀2는 아쉬움을 표현했으나 이를 수용했고 자기 욕구를 재촉하며 반복적으로 말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사후 검사에서 자녀1은 자신이 그린 그림의 의도를 부가 알아채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걸 알고 놀라워했다. 자녀2는 힘센 자신을 표현하려 했으며 자신의 차례가 되자 순서를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는 자녀들이 빨리하라고 할 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리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부모는 자녀들이 그린 그림을 수용하고 따라가 주는 태도를 보였으며 사전 검사 때와 다르게 적절한 제한을 두며 규칙을 이행하도록 지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2. 가족의 집짓기 분석

가. A 가족의 집짓기 분석



〈그림 3〉 A 가족의 가족 집짓기 사전 및 사후

(1) 과정분석

사전 검사 시 주로 자녀2가 주도적으로 했으며 나무 블록을 먼저 가져가려 형과 경쟁하는 태도가 관찰되었다. 자녀들은 각자의 공간을 만들려 했으나 모가 함께 하는 것임을 인지시켰고 부가 합치는 방법을 도와주어 하나의 형태로 만들게 되었다. 자녀들은 각자의 방을 만들지 않았고 자녀2는 형이 놓은 블록 조각을 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위치를 바꾸는 태도를 보였으며 자녀1은 이를 제지하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블록을 찾아 주지만 함께 쌓지 않는 모습을 유지했으며 가족 내 친밀감이 부족하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적은 모습이 관찰되었다.

사후 검사 시 자녀1은 나무 블록을 위로 쌓으며 단독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으며 간단히 집을 짓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태도를 보였다. 자녀2 역시 독립된 공간을 짓기 시작했으며 빈틈없이 둘러싼 집을 지었다. 형은 동생이 짓는 걸 바라보며 도움을 주거나 함께 하고 싶어 하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기다리는 태도를 보였다. 부 역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신중함을 기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모는 빠르게 집을 지었으며 자녀2가 만드는 걸 지켜보며 지지하고 격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가족들은 각자의 공간을 만들었으며 자녀1은 동생이 만드는 동안 지루해하며 시간제한을 두는 태도를 보였으나 방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다.

(2) 참여분석

사전 검사 시 한 채의 집을 만들었으며 자녀2는 튼튼하고 안전하게 빈틈없이 공간을 채우려 애썼고 자녀1은 동생이 만든 블록을 훼손하지 않으려 눈치 보며 조심스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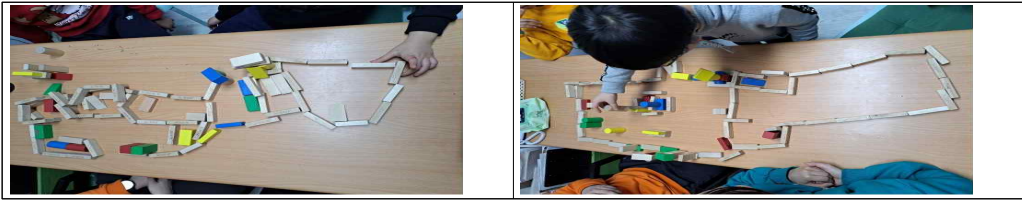
게 올리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각자의 방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거실과 같은 공동 구역이 방과 하나로 연결된 형태였고 문은 있으나 주변을 빈틈없이 둘러쌓아 안전성과 튼튼함을 강조하였다. 모는 자녀들이 만드는 동안 질문을 하고 말로 설명하며 도와주었으나 부는 언어표현이 매우 적었으며 방관적인 태도로 지켜보는 모습이 지속되었다. 이후 자녀2가 태양열 지붕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며 어떻게 할지 고민할 때 부가 삼각형 블록을 올려놓으면 된다고 제안했고 모가 방향을 알려주며 집이 완성되었다. 가족들은 주로 “여기 놔!, 이거 쥐!, 네가 해!” 등으로 소통했으며 폐쇄적인 형태의 집을 만들었다. 제목을 붙이는 과정에서는 자녀2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사후 검사 시 자녀1은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하며 ‘고층’이라고 제목을 정해 놓고 웃었고 자녀2는 자신이 만든 공간은 ‘테마파크 같은 곳’이라고 하였다. 모는 ‘열린 문’이라고 하였으나 벽면을 빈틈없이 둘러쌓은 형태로 만들었다. 부는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 느낌의 건축물을 지었으며 현재 쉬고 싶고, 여행 가고 싶은 심경을 담았다고 하였다. 자녀2의 집은 ‘안에 있는 걸 가져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하며 자기 걸 지키고자 하는 상징적인 표현을 하였다. 가족들은 함께 하나의 집을 짓기보다는 각자가 바라는 공간을 만들었으며 서로 방해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개방된 형태의 집을 지었다.

부모는 자녀들이 만드는 걸 수용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보이며 자녀들과 질문을 하고 답하는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작용이 증진된 모습이 관찰되었다. 자녀들 역시 자신이 만들고 있는 공간을 어떤 바람으로 만들었는지 개방적인 태도로 자유롭게 이야기하였으며 부모에게도 질문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부모는 자녀들의 욕구를 이전보다 더 수용하는 유연한 양육 태도를 보였다.

나. B 가족의 집짓기 분석

<p>사전 검사</p> <p>제목 : ‘파워레인저 에미멀퍼슬 티비보다 지옥가는 집’</p>	<p>사후 검사</p> <p>제목 : ‘둘이 놀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우리 집’</p>



〈그림 4〉 B 가족의 가족 집짓기 사전 및 사후

(1) 과정분석

사전 검사 시 부가 “애들아, 엄마가 꼭 갖고 싶은 집이 있데.”라고 하며 자녀들에게 집중하도록 하였고 “엄마는 방 4개짜리 집을 갖고 싶데~.”라고 한 것을 듣고 자녀들은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자녀1이 먼저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모는 수동적인 태도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으나 부는 자녀1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함께 했다. 반면 자녀2는 “이건 내 집이야.”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며 다른 가족의 참여를 거부하는 태도로 자신이 원하는 집을 짓기 시작했고 모는 “어차피 같이 살게 돼.”라는 반응을 보였다. 자녀2는 자신의 놀이에 몰두하는 태도가 강해 가족들과 함께하는 협력적인 태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후 검사 시 부가 가족이 함께 만드는 것임을 설명하였으나 자녀2는 이를 거부하며 자신이 원하는 집을 만들 거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였다. 부는 자녀2가 만든 집과 자녀1이 만든 집을 연결해서 만들도록 독려했으며 자녀들의 욕구를 잘 알아차리고 대처해주는 모습이 보였다.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의견을 묻고 부모의 의견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대안을 찾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자녀들은 후반부로 갈수록 서로 협동하거나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자녀2는 블록을 움직일 때 신중하게 임했으며 실수가 있을 때마다 더 집중하며 블록을 세워 놓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부모는 자녀2에게 구체적인 칭찬을 하며 지지하는 표현을 하였다.

(2) 참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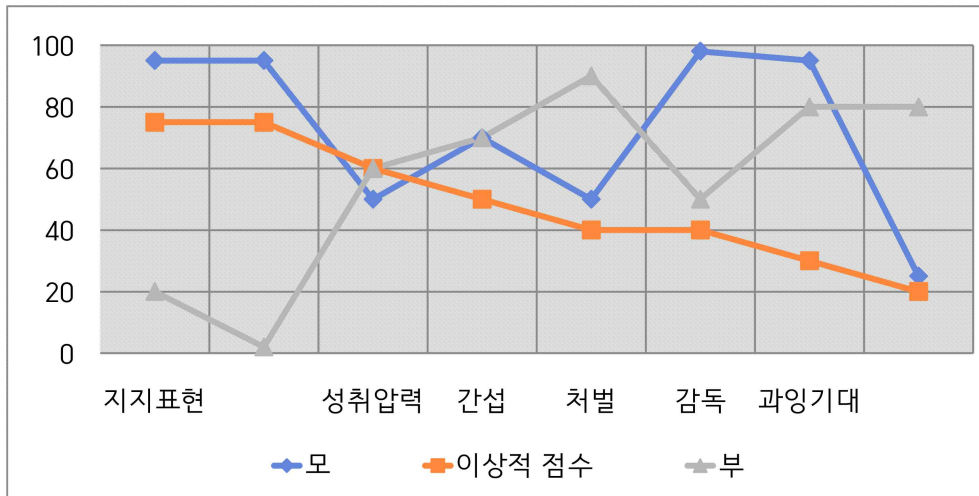
사전 검사 시 집의 형태는 하나로 연결된 집을 만들었으며 방의 수는 5개로 거실은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표현했다. 또 자녀의 방은 벽을 쌓아 분리한 형태로 만들었으며 외부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연결되었다. 가족의 집은 대체로 체계적이지 않았으며 혼란스러운 형태였다.

가족은 각자의 공간과 영역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관찰되었으며 협력하거나 협응하는 활동이 적었고 모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편이었다. 부는 자녀가 각자 집을 지을 때 통합하려 애를 썼으며 자녀1과 자녀2가 지은 집이 연결되도록 하였다. 자녀2는 낮은 수행력, 합리적이지 못한 구성, 논리적이지 못한 설명을 했다. 또 자녀2는 집을 짓는 동안 나무 블록을 자주 떨어뜨렸고 균형감각과 협응 능력의 부족함이 관찰되었다. 이때 부모는 독려, 지지 혹은 방법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자녀가 스스로 하도록 무심히 지켜보는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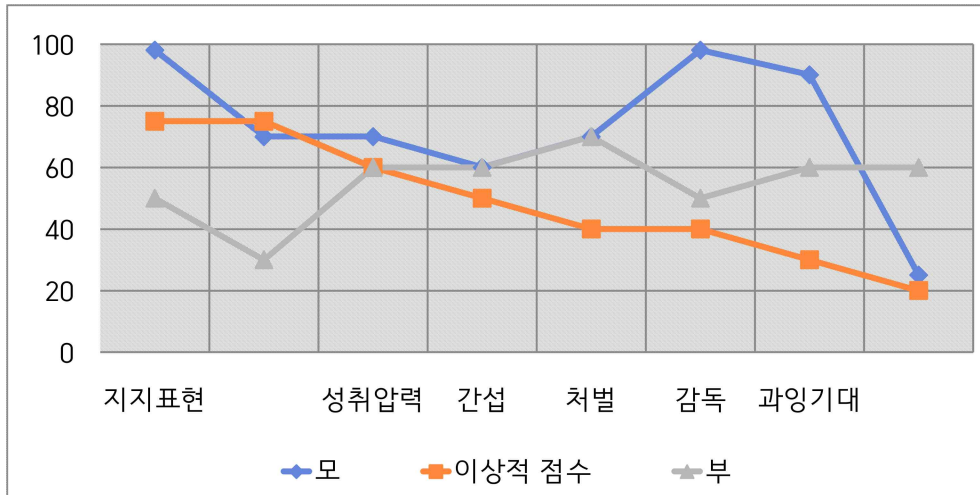
사후 검사 시 가족들이 지은 집은 넓고 개방적인 형태였으며 제목을 지을 때 자녀1은 ‘신나게 놀다가 죽는 집’이라고 표현하자 부는 ‘죽는다.’라는 표현을 제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후 제목을 정할 때 시간이 길어지는 모습을 보이자 부모는 다시 자녀들을 집중시키고 의견을 취합해 제목을 정하였다. 집은 하나로 연결된 형태로 자녀방을 하나씩 만들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을 만들었다. 또 자녀들의 방은 외부와 연결되는 문이 별도로 있었으며 사전 검사 때 보다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방을 구성하였다.

3. 부모 양육 태도의 변화

가. A 가족 부모의 양육 태도의 변화



〈그림 5〉 사전 검사



〈그림 6〉 사후 검사

부는 사전 검사에서 지지 표현이 20%였으나 사후 검사에서 50%로 32% 상승하여 이상적인 점수에 가까워졌다. 합리적 설명 역시 2%에서 30%로 상승하였으며 간섭은 70%에서 60%, 차별은 90%에서 70%로 낮아지는 변화를 보였고 과잉 기대와 비일관성은 각각 80%에서 60%로 낮아지는 변화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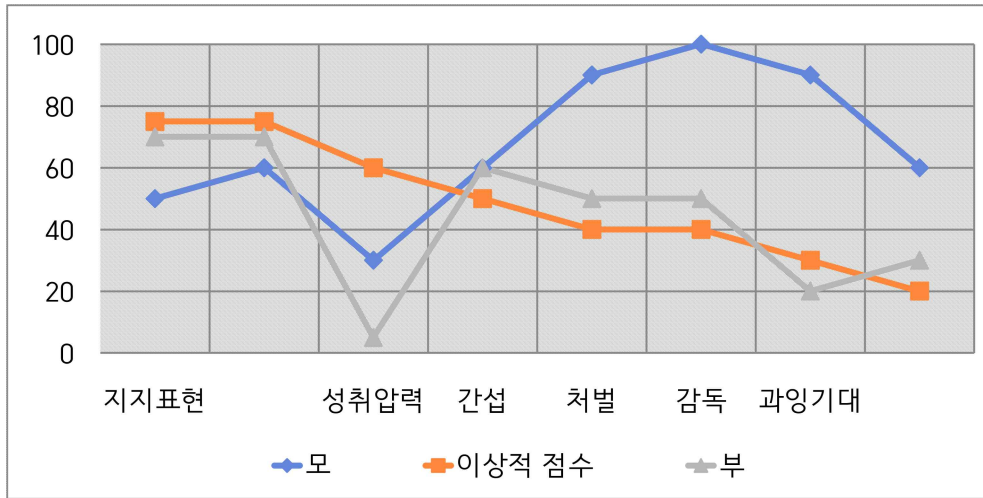
부는 언어표현이 적었으며 매우 강한 훈육과 차별로 자녀를 대했고 자녀들은 부를 무서워했다. 그로 인해 자녀들과 안정적이고 원만한 의사소통이나 정서적 친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하기 어려웠으나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를 통해 자녀의 생각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기다려 주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지지적이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자녀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모습이 증가해 부의 양육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의 경우 합리적 설명은 사전 검사에서 95%였으나 사후 검사에서 70%로 25%로 감소하여 이상적인 점수 75%에 가까워지는 변화를 보였다. 성취압력은 사전 검사 50%에서 사후 검사 70%로 상승하였으며, 간섭은 사전 검사 70%였으나 사후 검사에서 60%로 10% 감소하였다. 과잉 기대는 사전 검사 95%에서 사후 검사 90%로 5% 감소하였으며 비일관성은 사전, 사후 검사 모두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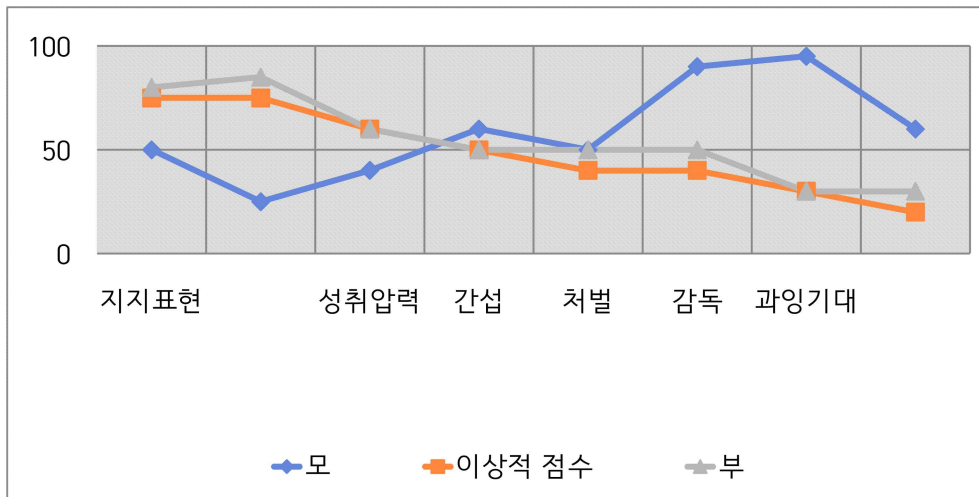
위와 같은 결과는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를 통해 자녀에 대한 지지와 반영, 구체적

인 칭찬을 하는 빈도가 늘어났으며 자녀를 지나치게 설득하려 하거나 부모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태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 가족놀이 치료를 통해 부모와 자녀는 대화를 많이 시도했고 서로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빈도가 늘어났으며 부모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양육 태도로 자녀를 대하게 되었다

나. B 가족 부모의 양육 태도의 변화



〈그림 7〉 사전 검사



〈그림 8〉 사후 검사

부는 사전 검사에서 지지 표현이 70%였으나 사후 검사에서 80%로 10% 상승하여 이상적인 점수보다 5% 높아졌으며 합리적 설명은 70%에서 85%로 변화하여 이상적인 점수보다 10% 증가하였다. 성취압력은 사전 검사에서 5%였으나 사후 검사 시 60%로 이상적인 점수와 일치하는 변화를 보였다. 간섭은 사전 검사 시 60%에서 사후 검사 시 50%로 이상적인 점수와 일치했으며, 처벌은 50%로 사전, 사후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과잉 기대는 사전 검사 20%에서 사후 검사 30%로 이상적인 점수에 좀 더 가까워진 변화를 보였다.

부의 경우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자녀들의 욕구를 잘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태도를 보였고 자녀에게 합리적이고 적절한 제한을 제시하여 부모 체계의 안정성을 만들어가는 변화를 보였다.

모는 지지 표현이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시 50%로 변화가 없었으며 성취압력은 사전 검사 30%에서 사후 검사 40%로 10% 상승하여 이상적인 점수와 가까워지는 변화를 보였다. 간섭은 사전, 사후 검사 모두 60%로 일치하였으며 처벌의 경우 사전 검사 90%에서 사후 검사 50%로 40% 감소하여 이상적인 점수에 가까워진 변화를 보였다. 감독은 사전 검사 시 100%였으며 사후 검사 시 90%로 10%로 감소했다.

모는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가 진행될수록 자녀를 지적하거나 처벌하기보다 적절히 설득하고 부모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태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적절한 제한과 안전한 경계 설정은 부모 체계를 견고히 해 자녀의 불안을 줄이고 안정감을 증가하게 했으며 자녀가 자기 성취감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과 부모의 양육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사정 평가로 DPICS-IV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두 가족의 부모 모두가 간섭, 감독, 과잉 기대, 통제적인 양육 태도를 보였다. 또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 대상에 적합한 가족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가족들은 사전, 사후 검사를 포함해 매주 1회, 60분씩 총 8회기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 진행하여 가족 협동화, 가족 집짓기, 부모 양육 태도의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은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가족이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신체접촉 놀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즐거운 정서를 교감하는 경험을 갖게 했다. 또 부모는 구조화된 놀이를 통해 자녀가 규칙을 이행하고 자기 행동 및 충동성을 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를 더 이해하고 수용하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게 되었다. 한편 경계선 지적 기능 자녀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도전하고 성취감을 증진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문제행동이 적거나 없는 자녀가 자신의 욕구를 은유적,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가족 내에서 경험했던 소외감이나 정서적 불편감을 해소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처럼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는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아동의 가족에게 부모-자녀 간 친밀감이 증진되는 경험뿐만 아니라 형제간에도 유대감과 협동심이 증진되어 가족 모두의 상호작용이 증진되는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산만하거나 무기력한 문제행동과 그로 인한 정서 및 사회적 문제행동,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녀들을 둔 11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가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증진되어 서로에 대해 개방적인 정서 표현이 가능해졌고 자녀들은 스스로 행동에 대처하는 능력을 발현하게 되었으며 가족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되었다(선우현, 2013)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부모는 자녀와의 놀이를 통해 자녀에 대한 지지와 수용이 부족했으며 자녀의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점을 알게 되었다. 또 부모는 자녀에게 과잉 기대, 부정적인 인식, 기다려 주지 못하거나 통제적인 양육 태도 등을 갖고 있었던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모는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를 통해 자녀를 지지하고 수용하는 방법을 연습했으며 통제적이고 처벌적인 양육 태도에서 부모 체계를 견고히 하면서도 안전한 경계 설정을 제안하는 유연한 양육 태도를 지니게 됐다. 이러한 영향으로 자녀는 더욱 안정적으로 자신을 조절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놀이를 했으며 성취감을 증진해 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는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증진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또 가족 내 친밀감의 증진은 부모가 자녀를 더욱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인식하고 대할 수 있게 하는 양육 태도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는 선행 연구들에서 보았듯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촉진 시키고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높이며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선우현, 2013). 또 부모는 자녀의 수준에 맞춰주며 배려하였고, 자녀들은 부모의 구체적인 칭찬과 지지를 받아 자신감을 발현하며 놀이하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수용하며 긍정적 의사소통이 증진되는 변화를 보였다(김다정, 2018)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욕구를 반영해주었고,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안에서 안전감을 느끼며 자유롭게 자기표현을 하였고, 문제행동이 줄어드는 변화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자율적이고 수용적인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이 낮아졌다는 박은성(2012)의 결과와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부모의 양육 태도 변화가 아동의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김명애, 선우현, 2016)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의 특정 기관에 소속된 두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과 대상의 수, 연령 등을 고려해 더 다양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 본 연구는 단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가족의 심층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를 통해 드러난 부부 혹은 자녀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담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으로 결과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양적연구를 통해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의 프로그램 효과성을 통계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공마리아, 석미진(2006). 가족미술치료가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위축 행동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0(2), 57-69.
- 곽금주, 오상우, 김청택(2011). 한국 웨슬러 아동지능검사 4판(K-WISC-IV) 전문가 지침서. 서울: 학지사.
- 곽금주(2021). K-WISC-V 이해와 해석. 서울: 학지사.
- 구본권(2009). 아동심리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 권영주(1998). 구조화된 집단 놀이치료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권은희(2008). 부자가정의 아버지-자녀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가족치료놀이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석만(2016).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 이론. 서울:학지사.
- 교육부(2022). 사회정책 누리집. www.inclusivekorea.go.kr.
- 김양오(2001). 게임놀이치료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주의집중행동 향상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광웅, 유미숙, 유재령(2004). 놀이치료학. 서울: 학지사.
- 김명애(2016).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가 모-자녀 간 상호작용 및 모의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모자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애, 선우현(2016).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가 모-자녀 간 상호작용 및 모의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모자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9(4), 381-403.
- 김현미, 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김혜숙(2005). 부모의 양육 태도와 대인관계 문제 및 역기능적 신념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효선, 선우현(2014). 가족놀이음악치료를 통한 부모-자녀관계 증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1), 65-92.
- 김효정, 선우현(2015). 가족놀이치료를 적용한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 사례연구. *통합치료연구*, 7(1), 63-102.
- 남은향(2017). 다문화가정 부모-아동 상호작용 변화 연구: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를 적용하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남숙, 한유진(2014). 애착문제 유아 가족을 위한 인형을 이용한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3), 115-135.
- 박재훈, 선우현(2012). 가족놀이치료를 통한 희귀난치성질환 환우 가족의 상호작용- 108 - 변화연구: 루게릭 질환 환우가족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3), 117-152.
- 박혜성(2005). 학령기 경계선 지능 아동과 일반 아동의 명료화 요구하기 수행비교.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은성(2012). 부모양육태도와 유아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계명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인재원(2019). 경계선 지적 기능의 특성과 이해. 청주시 : 동부.
- 신민섭(2005). 웨슬러 지능검사를 통한 아동 정신병리의 진단평가. 서울: 학지사.
- 신중호, 김동일, 신현기, 이대식(2002). 정신지체.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재연, 한지숙(2003). 아동과 부모, 가족 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 연구. 아동 학회지, 24(2), 63-78.
- 정희정(2005).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특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정희정, 이재연(2005). 경계선 지능 아동의 인지적, 행동적 특징, 『아동복지 연구』 3(3): 109-124.
- 정희정, 이재연(2008).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특성, 『특수교육학연구』, 42(4): 43-66.
- 정대영(2013). 한국에서의 학습장애 진단 및 판별의 쟁점과 개선 방향. 학습장애연구. 10.3 (2013): 1-20.
- 정옥분, 정순화(2017). 부모교육. 서울:학지사.
- 선우현(2006). 학습장애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가족놀이치료의 효과성 사례연구. 한국아동교육학회지, 16(1), 201-211.
- 선우현(2007a). 가족놀이치료가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 연구, 23(4), 197-216.
- 선우현(2007b). 가족놀이치료가 정서장애 아동과 부모와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향상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 91-106.
- 선우현(2007c). 위계질서가 혼란된 가족의 가족놀이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2), 389-406.
- 선우현(2013). 사례연구: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놀이치료연구, 17(1), 69-81.
- 성영혜(1997). 가족놀이치료. 상조사.
- 송영혜(1998). 놀이치료 적용. 대구대학교출판부.
- 이승희.윤호열(2007). 가족놀이치료가 산만함으로 의뢰된 아동의 주의산만, 충동성, 과잉행동 경향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11(2), 43-69.
- 임호찬(2008). 부모 양육 태도 검사. 서울: 마인드프레스.
- 정현아.선우현(2012). 가족놀이치료가 맞벌이 가정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시설회경, 10(4), 129-140.
- 예서현(2004). 부모의 효능과 부모 상호작용에 대한 의사소통 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생과 부모를 중심으로 한 석사학위 청구 논문: 한국교육대학교.
- 최윤미(2016). 집단놀이치료가 경계선 지능 시설 아동의 사회기술 증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용희, 노경주, 심중희(공역)(2000). 질적사례연구. 서울: 창지사. (원저 1995 출판).
- Ariel, S.(2005). Family Play Therapy. In C. Schaefer, J. McCormick, and A.Ohnogi(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Play Therapy: Advances in Assessmen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NY: Jason Aronson, 3-22.
- Burns, R. C., & Kaufman, S. H.(1972). Actions, styles and symbols in kinetic family drawing(KFD). An interpretive manual. New York: Brunner/ Mazel.
- Gabriele, Mi., Mara, M., & Pietro, P.(1998). Adolescent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psychopathological risk. Adolescence, summer, 33, 409-425.
- Haslam, D.(2010). Family sculpting with puppets. In L. Lowenstein, (Ed.). Creative family therapy techniques:

- Play, art, and expressive activities to engage children in family sessions. Toronto, ON: Champion Press.
- Hart, C. H., DeWolf, D. M., Wozniak, P., & Burts, D. C.(1992). Maternal andpaternal disciplinary styles: Relations with preschoolers' playgroundbehavioral orientations and peer status. *Child Development*, 63(4), 879-892.
- Kaufman, A. S. (2018).Contemporary intellectual assessment: Theories, tests, and issues. Guilford Publications.
- Mishna, F.(2003). Learning Disabilities and Bullying: Double Jeopardy.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6(4), 336~347.
- Manzoni, L. M.(2004). To What Students Attribute Their Academic Success And Unsuccess. *Education*, 124(4), 699-708.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2013). Single-parent families nationwide survey.
- Olweus, D.(2001). Peer harassment: A critical analysis and some important issues. *Peer harassment in school* .New York: Guilford.
- O'Connor, K., Ammen, S., Backman, T., & Hitchcock, D.(2001). The marschak interaction method rating system. Unpublished instrument, Fresno, CA.: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Al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 Schaefer, E. S.(1959). A circumplex model of maternal behavior. *Journal of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Sori, C. F.(2006). Family Play Therapy : An interview with Eliana Gil, In C. F. Sori(Eds.), *Engaging Children in Family Therapy*. New York : Taylor &Francis Group, LLC.
- Symonds, P. M.(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Y.: Bureau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Abstract〉

**Interactive family play treatment Boundary intellectual function
children Parents - Children interactions On the attitude of
parenting Case Study on Effects**

Yang, Ki-Jung · Sunwoo, Hyun
Dobong Woori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 Myeongj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with example how interactive family play therapy affects parent-child interaction and parenting attitudes for families of children who ha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s. We targeted parents participating in the parent education program of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al children conducted at the "C" General Social Welfare Center in the "D" district of "S" city. After explaining the purpose of it to them and obtaining consent, the two families were selected through preliminary interviews and assessment. Parents of both families had interference, oversees, excessive expectations, and controlled parenting attitudes, and were suffering from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ir children and difficulties in interacting. This program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eight sessions, once a week for 60 minutes, including pre-examination and post-examination. It promotes interaction among family members through physical contact, structured play, and free play, and helps families develop a cooperative bond by experiencing a variety of problem solving through acceptance and support. It also formed positive family relationships and maintained a stable family system. Based on this, children experienced an autonomous and leading sense of self-achievement, and parents showed a change in parenting attitudes that understood and accepted their children. This study is about an interactive family play therapy program for families of borderline Interaction functional children and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be used for follow-up studies by providing basic data on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al children and families who lack research interest.

Key words : Interactive Family play treatment, boundary line intellectual function, parent-child interaction, parental fostering attitude

인지행동 예술치료가 알코올중독환자의 단주자기효능감과 변화동기에 미치는 영향

장재영 · 최명선*

타임투힐 심리상담연구소 ·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인지행동 예술치료가 알코올중독환자의 단주자기효능감과 변화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자는 00시 소재 A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6개월 이상 단주를 이어가고 있는 남성 알코올중독환자 16명으로 연구대상자 중 8명은 실험집단, 8명은 통제집단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단주자기효능감 척도, 변화동기 척도(URICA)를 사전에 실시하였다. Mann-whitney U 검정으로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하고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21일부터 19년 1월 23일까지 주1회 80분씩 총 10회기에 걸쳐 인지행동 예술치료를 진행하였다. 사후 검사 후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행동 예술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한 단주자기효능감의 변화가 있었다. 둘째, 인지행동 예술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한 변화동기의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인지행동 예술치료가 알코올중독환자의 단주자기효능감과 변화동기의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알코올중독환자의 단주유지와 변화동기 향상에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지행동치료와 함께 두 가지 이상의 예술매체를 통합적으로 사용한 새로운 측면의 접근을 시도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주제어: 인지행동, 예술치료, 알코올중독, 단주자기효능감, 변화동기

* 교신저자: 최명선(selma320@empas.com)

■ 게재 신청일 : 2023년 7월 10일 ■ 최종 수정일 : 2023년 8월 19일 ■ 게재 확정일 : 2023년 8월 20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에서 알코올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목 모임을 갖거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 관대하게 인식되고 있다(이자영, 2018). 2021년 보건복지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알코올중독 평생유병률은 11.6%이다. 세계 평균 평생유병률은 8.6%(Glantz et al. 2020)로 세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알코올중독 평생유병률은 9.5%로 여성의 평생유병률 3.0%에 비해 3.3배 높게 나타나는 등(보건복지부, 2021), 남성의 경우 더 높은 알코올문제에 노출되어있다.

알코올중독은 과도한 음주에 의해 자기조절 능력이 상실되고 의사결정의 손상이나 음주에 대한 강박적인 충동, 건강 악화, 실직, 가족 해체 등 다양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Reilly, Noronha, Goldman, & Koob, 2017). 신체적으로는 간, 췌장, 위, 심혈관 등의 기능 저하와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한다(정남운, 박현주, 2000). 또한, 우울, 불안, 분노,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심리적 문제를 일으킨다(김기태, 2005; Ludwig, 2016). 알코올중독환자들은 음주조절 상실로 인해 자신의 중독문제를 부정하고 방어하며(강현식, 2015), 낮은 대인관계 기술과 사회 부적응을 경험한다(현명선, 우주현, 김현례, 2013).

알코올중독 치료는 일반적으로 약물치료와 심리사회적 치료로 구분된다. 약물치료는 주로 급성중독 및 금단치료 등 알코올에 대한 갈망을 감소시키거나 보상 효과를 차단하는 치료와 정신과적 치료 등을 목적으로 적용된다(정하나, 2022). 심리사회적 치료는 알코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응을 돕는 목적으로 인지행동치료, 12단계 프로그램, 동기강화치료, 가족치료, 자조모임(AA) 등이 있다. 치료는 대부분 집단으로 이루어지며 자기조절이나 사회기술 대인관계 훈련 등 사회적 적응을 돕는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진다(기선완, 2004).

알코올중독 치료의 목표는 단주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다. 일반적으로 문제행동이 없던 시기를 지낸 후 다시 문제행동으로 돌아가는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정수, 1988). 알코올중독환자의 알코올중독 재발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우울, 고독, 분노, 좌절 불안 등 부정적 정서 경험이 원인이 된다(Marlatt & Gordon, 1985). 부정적 정서는 재발의 주요 원인으로 단주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낮추고 변화

동기를 약화시킨다(권영혜, 2008). 단주자기효능감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여부와 관련이 깊다(안혜용, 2018; 임영란, 2000).

단주자기효능감은 음주를 선택하는 대신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 혹은 신념을 말한다. 단주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회복 가능성은 높아진다(정하나, 2022). 또한, 음주 고위험 상황에서도 개인이 회복을 시도하는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박예원, 2018). Marlatt와 Gordon(1985)의 연구에 따르면 단주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재발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높은 단주자기효능감은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단주지속 행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김성재, 1996). 즉, 단주에 대한 높은 자기효능감은 변화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변화동기는 목적 지향적이고 의도적·긍정적 개념으로(유채영, 2000), 개인이 변화할 이유와 변화하고자 하는 열의를 말한다(문순정, 2009). 변화동기는 행동을 시작하고, 방향을 정하고, 행동을 유지하게 한다. 개인이 지니고 있는 동기의 강도나 양이 클수록 습관적인 부적응적 행동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높아진다(Buck, 1988). 이러한 변화는 알코올중독환자들의 치료 세션의 참가율을 높이고 충동행동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최송식, 2013). Miller와 Tonigan(1996)은 중독과 관련된 문제점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변화동기가 달라지고 변화동기가 바뀌는 것은 변화를 위한 행동과 재발 방지를 위한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변화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인식과 감정 이해, 그리고 행동에 대한 자각이 중요하다.

알코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과 자기이해, 사회적응을 돕는 방법으로 인지행동치료가 있다. 인지행동치료는 변화동기를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최송식, 2013).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는 인지가 정서와 행동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인지매개가설 하에 인지적, 행동적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 방법이다(김은주, 2022). 인지행동치료 접근이 알코올중독에 효과적인 치료법인 이유는 음주 행동을 선택하는 기저에는 왜곡된 인지와 잘못된 문제대처방식이라는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자영, 2018). 인지행동치료는 알코올중독환자의 편협된 관점을 확대하고 다양하게 문제해결 방식을 모색하여 유연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며 재발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약물치료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김정범, 이상희, 2006). 하지만 치료방법에 있어 인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정서적 요소가 치료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Power, 2010). 인간의 행위는 대부분 감정으로부터 동기화되며, 감정과 인지는 서로 상호적인 관계이기에, 정서적 접근을 포함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홍지

영, 2017). 인지행동과 예술치료를 통합한 연구(이지혜, 2018)는 인지기능이 떨어지거나 행동조절이 어려운 알코올중독환자에게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예술치료가 자기인식과 행동변화를 이끄는 매개가 될 수 있다(Morris, 2014).

예술치료는 미술, 음악, 동작, 놀이 등 다양한 예술매체를 적용하여 감각 경험을 확장하고 자기표현을 촉진함으로써 치료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강경숙, 최세민, 오가영, 2009). 언어사용에 대한 한계를 벗어나 내담자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진단하고 예술 활동의 과정을 통해 내면의 무의식 탐색과 정서의 표출을 경험하게 한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 향상에 도움을 준다(김진숙, 1996). 예술치료는 내담자의 정서적 상태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선호하는 예술 영역에 대한 적극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홍지영, 2017). 인지행동 예술치료는 인지행동모델에서 인지재구성의 과정을 다양한 예술매체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치료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두 가지 이론의 독자적인 부분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 내담자의 자기표현 향상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임선희 외, 2011).

국내 알코올중독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치료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미술을 활용한 예술치료가 알코올중독환자의 분노표현 촉진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단주자기효능감을 높인다(이지홍, 2016; 안혜용, 2018; 이지혜, 2018). 음악을 활용한 예술치료는 알코올중독환자의 음주갈망 감소, 그리고 분노조절과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강신영, 2007; 조현, 2008; 권영혜, 2009). 이 연구들은 예술치료의 다양한 감각적 경험과 시청각적 매체의 활용이 언어적 상호작용으로만 진행되는 인지행동치료의 언어적 저항과 방어를 낮추고 치료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지홍, 2016). 이들 연구는 다양한 예술매체를 통합하는 것이 알코올중독환자의 자기 표현력을 높이고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변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예술치료는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표현을 촉진한다. 이는 개인적 이해와 의미를 확장하고 인지재구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인지행동치료와 함께 적용한다면 다양한 관점의 객관적인 사고를 하도록 한다. 이는 알코올중독환자의 단주자기효능감과 변화동기 향상에 효과적일 수 있다(홍지영, 2017). 그러나 인지행동치료와 예술치료가 통합된 알코올중독환자 대상 연구들은 미술이나 음악, 연극 등 단일 예술매체를 적용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현재 두 가지 이상의 예술매체를 통합해서 활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지행동 예술치료가 알코올중독환자의 단주자기효능감과 변화

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예술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알코올중독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치료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예술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인지행동 예술치료가 알코올중독환자의 단주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인지행동 예술치료가 알코올중독환자의 변화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OO시 소재의 A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6개월 이상 단주를 이어 가고 있는 남성 알코올중독환자 남자 16명이다. 16명은 모두 DSM-5 진단기준에 알코올 사용장애(알코올남용 혹은 알코올의존)로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알코올중독 이외에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지기능 손상이 현저한 사람, 알코올 이외에도 약물남용이나 의존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 시력 또는 청력 장애가 있는 사람은 연구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실험집단(n=8)	통제집단(n=8)
		사례 수(%)	사례 수(%)
연령	40대	2(25%)	1(12.5%)
	50대	3(37.5%)	4(50%)
	60대	3(37.5%)	3(37.5%)
현재 직업 유무	있음	2(25%)	3(37.5%)
	없음	6(75%)	5(62.5%)
결혼상태	미혼	4(50%)	5(62.5%)
	기혼	3(37.5%)	2(25%)

	이혼	1(12.5%)	1(12.5%)
거주형태	가족	5(62.5%)	4(50%)
	혼자	3(37.5%)	4(50%)
단주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4(50%)	5(62.5%)
	1년 이상	4(50%)	3(37.5%)

2.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8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OO시 소재의 A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다. 2018년 10월 A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내 게시판에 예술치료 참여자를 모집하여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남성 알코올중독환자 16명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연구 대상자들에게 참여 동의서를 받고 8명은 실험집단, 8명은 통제집단으로 사전 단주자기효능감 척도(김성재, 1996), 변화동기 척도(임조영 등, 1999)를 실시하였다.

Mann-whitney U 검정으로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하고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주1회 80분씩 총10회기 인지행동 예술치료를 진행하였다.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인지행동 예술치료를 실시하는 동안 통제집단에는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2019년 1월 23일 인지행동 예술치료를 종결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단주자기효능감 척도와 변화동기 척도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사 결과는 Wil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자료 수집은 사전 사후 검사 외 매회기 세션의 기록, 행동 관찰 노트, 미술작품 사진 등의 자료와 매회기 치료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가 포함되었다.

3. 측정 도구

가. 단주자기효능감 척도

알코올중독환자의 단주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DiClemente 등(1994)이 고안하였고 김성재(1996)가 수정·변안한 측정도구이며 이 척도의 4가지 하위 영역은 부정적 정서, 사회적 압력, 신체적 고통, 금단 및 갈망 등으로 구성되며 ‘매우 자신 없음(1점)’, ‘대체로 자신 있음(2점)’, ‘보통 자신 있음(3점)’, ‘대체로 자신 있음(4점)’, ‘매우 자신 있음(5점)’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김성재, 1996). 총 20문항으로 총점범위 20점~10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단주자기효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5이다.

나. 변화동기 척도

알코올중독환자의 변화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McConnaughy 등(1983)이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2문항으로 구성된 URICA는 변화에 대한 준비성을 나타내는 자기보고형 척도로 숙고전단계, 숙고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의 4가지 하위 척도에 해당하는 항목을 각 8개씩 포함하고(송수진, 2003), 각 하위척도의 평균점수를 합산(숙고단계+행동단계+유지단계-숙고전단계)하여 변화의 동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된다(DIClemente et al., 1994).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최저 1점으로 하고, ‘정말 그렇다’를 최고 5점으로 평가하는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변화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임조영 등, 1999).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79이다.

다. 신뢰도 검정

〈표 2〉 신뢰도 검정

요인	문항	문항 수	Cronbach's α
단주 자기 효능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	.95
변화 동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2	.79
전체		52	.87

각각의 요인이 조사도구로써 일관성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를 살펴보는 Cronbach's α 값을 산출한 결과, 단주자기효능감 척도 .95 변화 동기 척도 .79 로 나타났고, 모두 .6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 도구가 문항 간 일관성 있는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인지행동 예술치료

가. 인지행동 예술치료의 구성

본 연구는 인지행동예술치료가 알코올중독자의 단주자기효능감과 변화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자영(2018)의 알코올의존증 환자의 변화동기, 금주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홍지영(2017)의 인지행동기반 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 알코올중독 환자의 음주갈망과 단주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인지행동음악치료프로그램(2007, 강신영) 등을 참고하여 본 연구 대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인지행동 예술치료는 매회기 80분간 도입 20분, 본 활동 40분, 나눔 20 순으로 진행하였다. 도입에서는 악기연주, 동작하기, 음악감상 등의 활동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현재의 감정을 나누며 본 활동에 대한 이해 및 준비를 하였다. 본 활동에서는 그림 그리기, 만들기, 음악감상, 노래 만들기, 노래 부르기, 연극 등의 활동으로 주제에 대한 내면탐색과 자기인식을 격려하였다. 나눔에서는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나누고 지지받는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재인식과 통찰을 유도하였다.

본 활동은 초기, 중기, 후기의 3단계 총 10회기로 진행되었다.

단계별 목표는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지며 초기에는 인지행동 예술치료에 대한 이해와 집단에 대한 신뢰감 형성, 자기개방을 통한 친밀감 형성이다. 음주와 관련된 개인적 이슈와 음주선택에 따른 결과 탐색으로 문제행동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기에는 부정적 사고와 정서를 탐색하고 표현한 후,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전환하고 음주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대처방안을 찾도록 하였다. 후기에는 단주에 대한 목표를 이루는 소망을 반영하여 변화될 자신을 재인식하게 한 후, 단주의지에 대한 희망과 자긍심을 고취하며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활동의 내용은 아래의 <표 3>와 같다.

<표 3> 인지행동 예술치료 활동내용

단계	회기	주 제	목 표	활동내용
사전검사	1		오리엔테이션(사전검사 및 참가동의서 작성)	
관계형성	2	새로운 내 모습 자기소개	친밀감 형성과 문제인식	1. 타악기 즉흥연주 자기소개 2. 변화를 위한 새로운 애칭 짓기 활동 후 그림으로 표현

				3. 나눔
문제행동 인식	3	단주 전과 후의 내 모습	단주 전의 음주선택과 정서 인식하기	1. MI로 자기탐색 2. 단주 전과 후의 변화 인식 활동 후 그림으로 표현 3. 나눔
	4	나만 모르는 내 습관	음주에 대한 갈망과 충동 인식하기	1. Mirroring 즉흥연주 2. 자동적사고 탐색 후 마라카스 만들기 3. 나눔
부정적 사고 탐색 및 대처방안 찾기	5	나를 깨우는 시간	부정적 사고 탐색과 감정 다루기	1. 부정적사고 탐색 2. 대안적 가사적기 활동 후 Song Writing 3. 나눔
	6	술 없이 잘사는 법	음주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찾기	1. 노래 감상(노래 토의) 2. 음주에 대한 대처방안 찾기(토 론) 활동 후 자화상 만들기 3. 나눔
	7	내 인생의 인생음악	변화 목표에 대한 지지와 기대감 고취	1. 음악 자서전1 2. 힘을 주는 노래 찾기 활동 후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 3. 나눔
통찰 및 생활 속 적용	8	인생극장	변화에 대한 자기 인식	1. Mirroring 동작표현 2. 음악극에 들어갈 이야기와 대사 구성하기 활동 후 음악극 진행 3. 나눔
	9	메달 시상식	단주의지에 대한 자긍심 고취	1. 음악 자서전2 2. 자신에게 주고싶은 메달 만들기 활동 후 메달 시상식 진행 3. 변화에 대한 다짐 나눔
사후검사	10		사후검사 및 참여소감나누기	

나. 인지행동 예술치료의 회기별 내용

1회기는 치료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소개를 하고 알코올중독, 단주 자기효능감, 변화동기에 대해 설명하고 단주자기효능감 척도와 변화동기 척도 사전검

사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첫 시간이라 다소 어색하고 긴장한 모습도 보였지만 활동에 관심과 호기심을 보였다.

2회기는 치료사와 집단원들 간의 관계형성 및 신뢰감 형성에 초점을 두었다. 타악기 즉흥연주는 음악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심리적인 안정감 및 집단에 참여도를 높여줄 수 있다(최병철, 1999). 참여자들의 집단 참여도를 위해 타악기 즉흥연주로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집단원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였다. 미술매체를 활용한 애칭 짓기 작업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가 아닌 변화하고 싶은 새로운 이미지를 애칭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표현은 내면의 언어적, 정서적 표현을 돕고 다양한 미술매체를 통한 작품으로 자신의 내면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한다(최인영, 2018).

3회기부터 4회기까지는 자신의 문제행동을 인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3회기는 MI(Music & Imagery) 기법을 활용하여 신체와 심리 상태를 이완시키고 단주하기 전과 후의 내 모습에 대한 심상의 전개를 유도하였다. 이때 사용되는 음악은 치료사를 돕는 협력적 역할을 하여 내담자를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다(Grocke & Moe, 2018). 음악감상 기법을 토대로 떠올린 심상은 단주 전과 후의 이미지를 미술작품으로 시각화 하였다. 단주 전과 후 달라진 점의 발견은 문제행동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자신의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은 여러 생각과 감정들을 경험하게 하여 자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 및 여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4회기는 Mirroring 기법을 활용한 즉흥연주로 자동적 사고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집단원들은 자신의 핵심적인 감정을 마라카스로 표현하여 문제를 깨닫고 통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지행동 미술기법으로 만들어진 마라카스는 집단원들의 사고를 상징한다. 창조적 미술과정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였다(김예슬, 2007).

5회기부터 7회기까지는 부정적사고 탐색 및 대처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두었다. 5회기는 Songwriting 활동을 통해 음주상황에서의 자동적 사고 및 정서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집단원들은 가사의 일부분을 개사하여 부정적인 사고패턴을 확인하고 대안적 사고로 바꾸는 작업을 하였다. 문제 상황과 연관된 감정을 알아차리고 가사를 통해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했다. 집단원들의 지지와 피드백은 문제에 대한 자기지각 향상 및 대안적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한다(Ficken, 1976).

6회기는 노래토의 활동을 통해 중독 대안행동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였다. 각 대안의

장단점을 떠올리는 과정은 합리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래토의는 부정적인 감정과 억압된 비현실적 사고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 노래가사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빗대어 표현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사고패턴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정해연, 2006). 노래토의로 나온 대안행동을 시각화한 자화상 인형을 만들어본 뒤, 각 대안행동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였다. 미술매체로 시각화된 자화상을 만드는 과정은 자신의 부정적 사고와 정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한다. 이는 내면에 있는 긍정적, 부정적 인식 모두를 고려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김연주, 2006).

7회기는 음악자서전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자신과 연관되는 노래를 찾아 중독으로 인해 나타난 역기능적인 행동들을 재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노래 가사로 떠오르는 심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역기능적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나늬의 과정은 집단원간의 피드백을 통한 감정적 지지와 관심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대안들을 찾아가도록 하였다(김연주, 2006).

8회기부터 9회기까지는 자신을 통찰하고 생활 속에 적용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8회기는 음악극 활동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어려움들과 단주를 결심하면서 변화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였다. 또한,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대처방안도 음악과 함께 스토리텔링으로 표현해보았다. 음악극 활동은 자신의 문제와 생각, 고민을 함께 나누고 탐색하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의 배움과 함께 문제 상황에 대한 사회적 대처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정현주, 2005).

9회기는 자신에게 주고 싶은 상을 메달로 만들며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떠올려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나누었던 부정적사고, 술 없는 삶에 대한 대처방안 등 문제해결기술을 앞으로의 삶 속에 적용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지지해주었다.

10회기는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총 10회기 동안의 참여 소감을 나누면서 마무리하였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결과 도출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각 요인이 조사도구로써 일관성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문항내적일치도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실험 집단, 통제집단 간 동질성 검증을 위해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고, 사전과 사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인지행동 예술치료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Mann-whitney U 검정으로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실험-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결과

구분		N	평균순위	순위합	Mann-whitney U	Z
단주 자기 효능감	실험집단	8	8.44	67.50	31.500	-0.53
	통제집단	8	8.56	68.50		
변화 동기	실험집단	8	9.13	73.00	27.000	-1.29
	통제집단	8	7.88	63.00		

인지행동 예술치료 실시 전 동질성 검증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두 집단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단주자기효능감 차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단주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실험-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단주자기효능감 차이

요인	집단	사전	사후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N	Z
		M (SD)	M (SD)	N	평균 순위	순위 합	N	평균 순위	순위 합		
단주 자기 효능감	실험	66.88 (17.11)	78.63 (19.08)	1	1.00	1.00	6	4.50	27.00	1	-2.20*

		66.38	62.63								
척도	통제	(24.66	(21.36	3	3.00	9.00	2	3.00	6.00	3	-.41
))								

* $p < .05$

단주자기효능감 척도에 대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Z=-2.205$, $p < .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변화동기 차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변화동기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6>와 같다.

<표 6> 실험-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변화동기 차이

요인	집단	사전	사후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Z		
		M (SD)	M (SD)	N	평균 순위 합	N	평균 순위 합	N			
변화 동기 척도	실험	77.88 (11.66)	84.13 (9.54)	0	0.00	0.00	8	4.50	36.0 0	0	-2.52 *
	통제	74.50 (8.02)	73.13 (9.36)	5	4.90	24.5 0	3	3.83	11.5 0	0	-.91

* $p < .05$

변화동기 척도에 대한 실험집단의 사전과 사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Z=-2.524$, $p < .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1.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인지행동 예술치료가 알코올중독환자의 단주자기효능감과 변화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의 대상자는 OO시 소재의 A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남성 알코올중독환자 16명이다. 선발된 연구 대상자의 16명 중 8명은 실험집단, 8명은 통제집단으로 연구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단주자기효능감 척도, 변화동기 척도(URICA)를 사전에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여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하고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21일부터 19년 1월 23일까지 주1회 80분씩 총 10회기 인지행동 예술치료를 진행하였다. 사후검사 후 Wilcoxon의 부호 순위 검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나온 결과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행동 예술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한 단주자기효능감의 변화가 있었다. 단주자기효능감 척도에 대한 사전사후 검정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z=-2.205$, $p<.05$)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통제집단의 경우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행동 예술치료가 알코올중독환자의 단주자기효능감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자기인식과 자각을 촉진하는 인지행동 방법을 통해 음주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자기조절을 통해 단주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알코올중독환자의 재발방지를 위해 인지행동치료를 적용시킨 Marlatt와 Gordon (1985)의 재발방지 치료모형(Relapse Prevention Mode)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발 상황을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대안적 행동탐색이 단주자기효능감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안혜용, 2018).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사고를 탐색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인 가사를 적어보는 음악활동을 통해 자기 인식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안적 행동탐색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음주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토론하며 실제 재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을 마련하였다. 이는 대안적 가사 적기 활동이 알코올중독자의 자기인식을 높이고 대처방안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는 정해연(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미술 매체의 활용은 자신의 이야기를 방어나 회피 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작품의 결과물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다

명확하기 자기탐색과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지혜, 2018). 또한, 집단원들의 자기방어를 낮추고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치료환경을 기반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함으로써 단주자기효능감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미술매체의 활용을 통해 언어적 저항과 방어를 낮추고 집단원간의 공감적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내어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신감을 향상시켰던 이지홍(2016)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둘째, 인지행동 예술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한 변화동기의 변화가 있었다. 변화동기 척도에 대한 사전사후 검정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z=2.205, p<.05$)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통제집단의 경우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행동 예술치료가 알코올중독환자의 변화동기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본 연구의 초기회기에는 새로운 애칭 짓기 활동과 단주 전과 후의 변화 인식 활동을 통해 변화에 대해 새로운 태도를 갖도록 하였다. 새로운 각도로 자신을 보기위한 시도는 연구 대상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었다. 자신으로 변화하려는 결단은 충동행동을 감소시키고 치료에 적극적 동참을 포함하는 긍정적 치료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이는 변화에 대한 태도를 갖는 것만으로도 변화동기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최송식(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변화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인식과 감정 이해가 중요하다. 미술매체의 활용은 알코올중독환자의 방어를 축소하고 자연스러운 감정표현과 자기개방을 이끌어내었다. 집단원들과 함께 나에게 힘을 주는 노래를 감상하는 음악활동은 노래 가사가 주는 긍정적인 감정을 탐색함으로써 자기 욕구를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강신영, 2007). 자신을 수용하는 과정은 변화동기를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이혜경, 2003). 집단원들과 노래를 듣고 함께 부르고 나누는 과정은 타인으로부터 공감 받고 수용 받는 경험이 될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 관계와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다(김선식, 2016).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반복되는 문제행동의 패턴을 알아차리고 부정적 사고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인지행동치료를 통한 인식과 변화의 과정이 동기로 이어졌던 이자영(2018)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한 결론으로 추후 알코올중독환자의 단주자기효능감과 변화동기의 향상에 관련된 연구가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었으며 연구 대상의 규모 역시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대상자의 수가 적은 단일집단으로 진행한 사례이므로 연구의 결과를 모든 알코올중독 환자에게 확대 적용하여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여 충분한 표본을 추출하고 이들에 대한 요인들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좀 더 다양한 집단별 특성에 맞춰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여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둘째, 연구 대상이 남성 알코올중독환자들로만 구성되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남성과 여성에게 지각되는 단주자기효능감과 변화동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단주자기효능감과 변화동기에 대한 요인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알코올중독은 재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특성이 있기에 일정 기간 내 동일 연구 대상자의 재발여부에 대한 추적연구를 실시하여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추후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후 사례관리 및 단기 프로그램 적용을 실시한다면 연구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의 제한점이 있었으나 본 연구는 인지행동 예술치료가 알코올중독환자의 단주자기효능감과 변화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알코올중독환자의 단주자기효능감과 변화동기 향상에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지행동치료와 두 가지 이상의 예술매체를 통합적으로 사용한 새로운 측면의 접근을 시도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참고 문헌

- 강신영(2007). 인지행동 음악치료가 알코올 중독 환자의 음주갈망과 단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혜(2008). 인지행동적 즉흥연주 음악치료활동이 알코올 중독자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 단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도연·태유월(2013). 중독자에 대한 미술치료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고찰. 임상미술심리연구소, Vol. 3(1), 39-59.
- 김선식(2016). 노래심리치료를 통한 알코올중독 치료 중재효과.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재(1996). 알코올리즘의 재발에 관한 이론적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주(2006). 집단 인지행동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부정적 사고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슬(2008). 인지행동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2022). ADHD 아동의 과잉행동장애와 일상생활 적응에 대한 인지행동 미술치료 사례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범·이상희(2006). 우울장애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의 최근 연구동향. 인지행동치료, 6(2), 131-144.
- 김정수(1988). 임상사회사업장면에서의 단주친목집단의 활용.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지수(2023). 부모의 알코올의존이 성인 알코올의존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순정(2009).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가해자의 변화동기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예원(2018). 단주 자조집단 참여자의 적응유연성과 사회적 지지가 알코올 회복에 미치는 영향: 금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21).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
- 보건복지부(2021).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1.14.)
- 민성길(1993).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 유채영(2000). 문제음주자의 변화동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혜용(2018). RP기반 집단미술치료가 알코올중독자의 우울과 스트레스대처능력 및 금주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국제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자영(2018). 알코올의존증 환자의 변화동기, 금주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대처 증진과 우울감소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은(2010). 집단미술치료가 알코올중독자의 금주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혜(2018). 인지행동이론을 접목한 집단미술치료가 알코올 사용 장애 입원환자의 분노표현과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선화·이미영·김정민(2013). 중년기 배우자 사별 여성을 위한 애도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인지행동치료, 13(2), 173-191.
- 임영란(2000). 알코올 의존 환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검증 및 심리적 위험인자에 대한 구조 모형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다희(2010). 인지행동 미술치료가 정신질환자들의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하나(2022). 알코올중독자의 사회적지지가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단주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주(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정혜연(2006). 신경성 폭식증 성인에 대한 인지행동음악치료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병철(1999). 음악치료학. 서울: 학지사.
- 채숙희(2005). 알코올의존의 회복을 예측하는 심리적 요인.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삼욱, 나란희, 김한오, 최성빈, & 최영숙(2006). 남성 알코올의존환자의 삶의 질과 정신-사회-영적 특성과의 관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5(5), 459-467.
- 최송식(2013). 한국사회에서 알코올중독자의 재발예방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문화, (48), 307-348.
- 최인영(2018). 인지행동적 집단미술치료가 조현병 환자의 정서 표현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 근(2012). 알코올중독 회복자를 위한 단기통합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평가.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지영(2017). 불안장애의 인지행동 통합예술치료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Ficken, T. (1976). The use of song writing in a psychiatric setting. *Journal of Music Therapy*, 13(4), 163-172.
- Finney, J.W. & Moos, R. H.(1991). The long-term course of treated alcoholism Mortality, relapse, and remission rates and comparisons with community control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2(1), 44-53.
- Grocke, D, & Moe, T., 문소영·박지원·배민정·음승희·이상은·이운진·옴김. (2018). 『음악을 통한 개인치료와 그룹치료 기법 GIM과 MI』. 서울: 학지사.
- Marlatt, G. A & Gordon, J. R.(1985). *Relapse prevention : Maintenance strategies in the treatment of addictive behaviors*, NY: Guilford Press.
- Moreno,J.J.(1999). Acting your inner music, Music therapy and Psychodrama MMB Music IMC.
- Reilly, M. T., Noronha, A., Goldman, D., & Koob, G. F. (2017). Genetic studies of alcohol dependence in the context of the addiction cycle. *Neuropharmacology*, 122, 3-21.

〈Abstract〉

**The Effects of Cognitive Behavior Art Therapy on Sobriety
Self-efficacy and Motivation for Change in Patients with
Alcoholism**

Jang, Jae-Young . Choi, Myung-Sun

Timetoheal psychological Counseling Research Institute .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cognitive-behavioral art therapy on the self-efficacy and motivation to change in alcoholic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6 male alcoholics who had been sober for more than 6 months at A Addiction Management Integrated Support Center located in OO City. Eight of the selected research subjects were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eight were in the control group.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study, the Sobriety Self-Efficacy Scale and the Motivation to Change Scale (URICA) were conducted in advance. After confirming that the group was homogeneous using the Mann-whitney U test, cognitive behavioral art therapy was conducted on the experimental group for a total of 10 sessions for 80 minutes once a week from November 21, 2018 to January 23, 2019. After the post-test,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using Wilcoxon's signed rank test a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mental group that participated in cognitive behavioral art therapy had significant changes in sobriety self-efficac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Second, the experimental group that participated in cognitive behavioral art therapy had a significant change in motivation to chang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cognitive-behavioral art therapy on alcohol addiction patients' self-efficacy and motivation to change.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ognitive behavioral art therapy on the self-efficacy and motivation to change of alcoholics and presented an effective alternative for improving the self-efficacy and motivation to change of alcoholics. Additionally, it can be significant in that it attempted a new approach that integrat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nd two or more art media.

Key words :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rt therapy, alcoholism, sobriety self-efficacy, change motivation

초기성인기의 의사소통 유형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와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효과-

박세진* · 홍혜영**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초기성인기의 의사소통 유형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와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만 18세부터 만 28세까지의 성인 347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유형, 대인관계 만족도, 자아분화, 정서인식 명확성 척도를 활용하여 자료를 온라인 설문으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1.0을 사용하여 측정모형과 구조모형,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능적 의사소통은 대인관계 만족도와 자아분화, 정서인식 명확성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대인관계 만족도와 자아분화, 정서인식 명확성과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아분화와 정서인식 명확성은 대인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아분화와 정서인식 명확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기능적 의사소통은 대인관계 만족도에 직접적인 경로효과를 가지며, 자아분화는 기능적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정서인식 명확성 역시 기능적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분화와 정서인식 명확성이 이중매개효과를 갖지는 않았다. 반면에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대인관계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정서인식 명확성은 그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졌다. 자아분화는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자아분화와 정서인식 명확성은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 이중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초기성인기, 의사소통 유형, 대인관계 명확성, 자아분화 정서인식 명확성

* 본 연구는 박세진(2021)의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요약한 논문임.

** 교신저자: 홍혜영(hyhong@mju.ac.kr)

■ 게재 신청일 : 2023년 7월 25일 ■ 최종 수정일 : 2023년 8월 22일 ■ 게재 확정일 : 2023년 8월 23일

I. 서론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로서, 생애 초기부터 시작하여 전 생애 동안 수많은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간다. 대인관계는 인간에게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하여 개인은 정체감을 확립하고 건전한 성격발달을 이루어가며 자아성취감, 행복감 등 인간의 욕구만족을 이룰 수 있다. 반대로 대인관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이나 우울, 욕구좌절, 소외 등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강소영, 2009; 권석만, 1995).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중 초기성인기에 해당하는 20대는 가장 혼란하고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Erikson(1963)은 이 시기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주요 과업이라 하였으며 원만한 관계들을 형성하는 것을 통하여 행복과 안정감을 찾아간다고 보았다. 특히나 한국의 20대는 대부분 대학과 직장생활 같은 새로운 환경을 시작하며 다양한 관계를 맺어가게 되고 나아가 가정을 이루기 위한 준비과정들을 겪는 시기이다. 또한 사회적, 법적으로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 되는 시기이며,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들이 공존하는 시기이기에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어떻게 형성해나가는가의 문제는 개인의 삶과 질뿐만 아니라 이후의 인생경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인관계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은 연구대상이 대학생에 집중되어 있어(고미숙, 전영자, 2016; 김소연, 박부경, 2018; 박준형, 오두남, 2017; 이준형, 2014),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졸업 후 일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을 모두 포함한 초기성인기의 대인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만족감 있는 관계 형성이 주요한 과업인 초기성인기를 대상으로 대인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인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애착(김나연, 2019; 황예은, 이지민, 2019), 내외향성(장혜진, 2015; 최미영, 2012), 정서억제(어유경, 박수현, 2018), 정서표현갈등(강소영, 2009) 등의 다양한 변인들이 연구되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형성에 도구이자 기초가 되는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었다.

의사소통은 한 인간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인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그 대인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자 동시에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은미, 2013). 또한 의사소통 경험의 연속을 통해 일상생활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이루진, 2008).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울음이나 표정 등의 비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알리며 관계를 형성한다. Satir(1991)는 사람들이 긴장 시에 사용하는 의사소통과 대처방식을 관찰하여 사람들이 공통된 방법으로 긴장을 해결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의사소통유형을 기능적 의사소통인 일치형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인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으로 구분하여 역기능적인 네 가지 대처유형을 제거하여 전달하고자하는 내용과 정서가 일치하는 일치형의 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떠한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함에 따라 개인의 심리 역동뿐 아니라 대인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은미(2013)는 의사소통 유형 중 일치형과 회유형은 정적 영향을 미치나 초이성형은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준형(2014)은 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인 일치형이 가장 높은 대인관계 만족도를 나타내며,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인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순으로 대인관계 만족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송지영(2020)은 일치형과 산만형이 정적 영향을 미치고, 비난형은 강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인 일치형은 대인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반해,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하위요소들은 연구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대인관계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 유형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과관계를 살펴보거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들(김향수, 김혜경 2019; 정은미 2013)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과 경로를 거쳐서 대인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유형을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여 대인관계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 매개변인들을 통한 대인관계 만족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의사소통은 자아분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Bowen, 1976). 자아분화란 사람이 어머니와의 정서적 융합에서 서서히 벗어나 자신의 정서적 자주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다세대 가족체계이론의 핵심개념으로(김혜림,2014; Bowen, 1976 재인용), 미분화된 가족 자아덩어리에서 자신을 분리 독립시켜 정체감을 형성하고, 충동적인 사고와 행동을 분리 독립시켜 정체감을 형성하고, 충동적인 사고와 행동에서 자유를 획득해가는 과정을 말한다(이윤영, 2015; 제석동, 1989).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외부 환경이나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성숙한 인격체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경구, 김영혜, 2014). 청소년의 의사소

통 유형에 따른 자아분화의 차이는 하위요소 중 삼각화를 제외한 모든 자아분화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하였다(송은진, 2010).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수록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김정은, 2006, 박선주 2011). 자아분화가 높은 사람은 기능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며,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한다는 연구(이종원, 옥선화, 2015)와 같이 자아분화가 의사소통에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는 선행연구도 있다. 또한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개인의 심리내적 측면에서나 대인 관계적 측면 모두에서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균형 있게 하는 특징을 나타낸다(박희룡, 201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분화는 이성관계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이은선, 2019), 성인초기의 자아분화는 연애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은애, 2017). 자아분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부관계나 결혼관계, 이성관계 만족도처럼 친밀한 관계와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변인 간에 정적인 영향을 가진다는 것으로 보아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는 변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사람은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으며 편하고 즐겁게 대인관계를 형성한다(서은혜, 2005). 정서란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인식하면 결과로 생리적인 변화가 따르는 복합적 상태로서 다양한 감정들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을 말하며(김경희, 1995), 정서인식 명확성은 자신의 정서 상태를 스스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능력으로(권진희 2007; Swinkels & Giuliano, 1995),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정서를 이해하는 정도를 나타낸다(Salovey & Mayer, 1990).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조절하는데 필요한 선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얼마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정서조절 전략과 그로 인한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박희룡, 2015).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으면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처럼(Mallinckrodt & Wei, 2005), 국내 연구에서도 정서인식 명확성이 대인관계 만족도와 정서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지혜, 2010).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서에 대한 갈등이 적고, 문제시 되는 정서가 나타났을 때 적응적인 반응을 통해 높은 삶의 만족과 주관적 안녕감, 만족스런 대인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권진희, 2011; 이서정, 현명호, 2008; 이유나, 2019; 홍주현, 심은정, 2013; Swinkels & Giuliano, 1995; Mallinckrodt & Wei, 2005). 자아분화와 정서인식 명확성 간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자아분화는 정서인식 명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영

향을 주며, 이는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이유나 2019, 조민경, 2020). 이처럼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자아분화와 정서인식 명확성은 유의한 관계를 가지며, 의사소통 유형과 대인관계 만족도에서 이중매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만한 관계 형성이 중요한 초기성인기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유형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와 정서인식 명확성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고 각 변인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 유형과 내담자의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정서인식 명확성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어떠한 경로로 대인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봄으로써 상담의 현장에서 개입방안의 근거를 제공하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의사소통 유형, 대인관계 만족도, 자아분화, 정서인식 명확성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의사소통 유형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의사소통 유형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4. 의사소통 유형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 정서인식 명확성은 이중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성인초기를 만 18세~만 28세 미만으로 한정된 후 초기성인기의 남녀 총 3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되어 대면설문이 불가능해져, 구글(google)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서울 소재 대학 6곳, 경기 소재 대학 1곳 및 교회시설들, 군부대와 SNS상으로

배부되었다. 본 조사는 총 350부의 설문지 중 데이터클리닝을 통해 연구대상이 아닌 3부를 제외한 347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247명 중 성별은 남자가 104명(29.7%), 여자가 244명(70.3%)이며, 평균 나이는 22.98세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초중졸이 1명(0.3%), 고졸이 201명(57.9%), 대졸이 128명(36.9%), 대학원 이상이 17명(4.9%)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는 서울이 160명(46.1%), 경기권이 107명(30.8%), 강원권이 5명(1.4%), 충청권이 21명(6.1%), 경상권이 33명(9.5%), 전라권이 17명(4.9%), 기타가 21명(6.1%)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가. 의사소통 유형 척도

본 연구에서는 초기성인기의 의사소통 유형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Satir(1972)의 의사소통이론과 손연주(1997)의 의사소통유형 체크리스트, 송성자(1985)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상순(1998)이 제작한 의사소통 유형 검사를 사용하였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로 평정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수는 기능적 의사소통인 일치형(19문항)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하위유형은 회유형(17문항), 비난형(13문항), 초이성형(11문항), 산만형(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 유형은 척도에서의 정의대로 각 사람의 의사소통 유형의 하위척도 점수를 t환산 점수로 환산하여 그 중 가장 높은 점수의 유형을 그 사람의 유형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기능적 의사소통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28이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08이었다.

나. 대인관계 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Guernsey(1977)의 관계변화 척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문선모(1980)가 번안한 대인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만족도 척도는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7개의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양식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인관계 만족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08이었다.

다. 자아분화 척도

자아분화는 Bowen의 가족체계이론과 국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혜정과 조은경(2007)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정서적 단절, 타인과의 융합 및 정서적 융합의 5가지 하위 척도를 포함하며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6점 척도로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기입장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을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인관계 만족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03이었다.

라. 정서인식 명확성 척도

Salovey의(1995)가 개발하고,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특성 상위기분(Trait MetaMood Scale; TMMS)척도를 사용하였다. TMMS는 정서에 대한 주의 5문항, 정서인식의 명확성 11문항, 정서조절 기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의 명확성 1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하는 5점 Likert척도이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점수가 낮을수록 정서인식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인관계 만족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35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SPSS 21.0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자료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종속변인 이외의 변인을 평균 중심화하였다. 셋째, 의사소통 유형, 대인관계 만족도, 자아분화, 정서인식 명확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여 Pearson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검증하기에 앞서 SPSS 21.0에서 기능적 의사소통, 역기능적 의사소통, 대인관계 만족도, 자아분화, 정서인식 명확성을 요인분

석하여 측정변수를 제작하고,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1.0을 이용하였다. 다섯째, 변인 간의 영향과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각 연구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로계수 값을 산출하였다. 여섯째, 기능적 의사소통 모형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모형에서 설정한 경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AMOS 21.0의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사용하여 간접 경로들의 개별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과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1	2	3	4	5
1. 기능적 의사소통	-				
2. 역기능적 의사소통	-.33**	-			
3. 대인관계 만족도	.73**	-.36**	-		
4. 자아분화	.48**	-.52**	.31**	-	
5. 정서인식 명확성	.52**	-.47**	.53**	.40**	-
평균(M)	3.40	2.67	3.45	2.53	3.53
표준편차(SD)	.52	.33	.57	.65	.64
왜도(skewness)	-.03	.48	-.22	.28	-.18
첨도(kurtosis)	-.27	.45	-.06	.38	-.12

Note. N = 347, **p < .01.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능적 의사소통은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며($r = -.33, p < .01$), 대인관계 만족도($r = .73, p < .01$), 자아분화($r = -.48, p < .01$), 정서인식 명확성($r = .52,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대인관계 만족도($r=-.36, p<.01$), 자아분화($r=-.52, p<.01$), 정서인식 명확성($r=-.47,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만족도는 자아분화($r=.31, p<.01$), 정서인식 명확성($r=.53,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분화는 정서인식 명확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40, p<.01$). 주요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값을 확인한 결과, 왜도가 2보다 작고 첨도가 7보다 작으므로 정규성의 기준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각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2. 측정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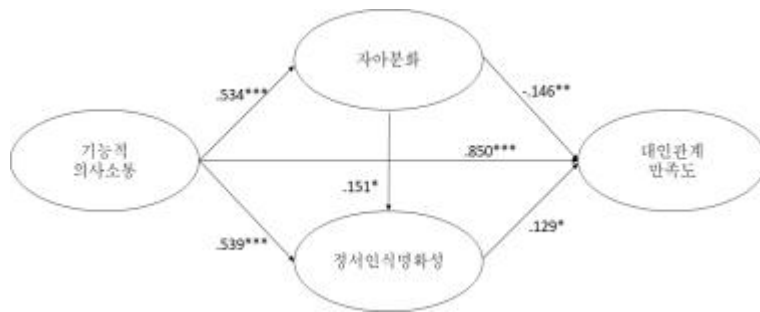
의사소통 유형과 대인관계 만족도, 자아분화를 측정하는 도구는 문항수가 많아 임의(random) 묶음으로 진행하였다. 문항의 수가 많을 때 개별 문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게 되면 추정해야할 미지수가 많아지고, 제한된 표본으로 많은 수의 미지수를 추정할 때에도 추정오차가 많아지기 때문에(Bentler & Chou, 1987; Marsh, 1994, 조용래, 2004 재인용), 문항들을 임의로 배치하여 통계적으로 각 묶음 속에 배치된 문항의 모든 특성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문항묶음을 임의 묶음으로 진행하였다(문수백, 2009). 문항묶음(item parceling)은 측정변인이 3개 이상일 때 모형 적합성이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우종필, 2015), SPSS의 요인분석에서 요인의 수를 1로 지정하고 요인 부하량에 따라 문항의 순서를 나열하여, 나열된 문항을 3개의 항목으로 나누고 요인 부하량의 평균값을 유사하게 구분지어 구성하였다. 즉,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에 따라 문항별로 순서대로 나열하여 부하량이 가장 큰 문항과 가장 작은 문항을 짝으로 묶어 차례대로 3개의 묶음으로 할당하였는데, 이는 모수를 줄여주고 잠재변인 간의 상관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김란희 2014 재인용). 이에 기능적 의사소통, 역기능적 의사소통, 대인관계 만족도, 자아분화는 각각 3개의 항목으로 문항묶음을 진행하였으며, 문항이 적은 척도인 정서인식 명확성은 2개의 항목으로 문항묶음을 진행하여 사용하였다. 의사소통 유형을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여 2개의 가설모형에 따라 대인관계 만족도, 자아분화, 정서인식 명확성의 잠재변인과 해당 측정변수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2=84.924(p<.001)$, $df=38$, $TLI=.975$, $CFI=.983$, $RESEA=.060$ 로 나타나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모수추정치 산출하니 기능적 의사소통 측정모형에

서 요인부하량의 표준화된 값을 보면, 기능적 의사소통이 .82~.90, 대인관계 만족도가 .85~.90, 자아분화가 .95~1.01, 정서인식 명확성이 .85~.91로 나타났다. 유의성(C.R) 값은 15.19~26.87로 나타나 기능적 의사소통 측정모형이 타당도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2=86.799(p<.001)$, $df=38$, $TLI=.973$, $CFI=.982$, $RESEA=.061$ 로 나타나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부하량의 표준화된 값을 보면,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77~.86, 대인관계 만족도가 .80~.92, 자아분화가 .88~.90, 정서인식 명확성이 .82~.94로 나타났다. 유의성(C.R) 값은 15.40 ~25.20으로 나타나 역기능적 의사소통 측정모형이 타당도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모형 검증

검증된 측정모형에 인과관계를 더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기능적 의사소통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2=84.924(p<.001)$, $df=38$, $TLI=.975$, $CFI=.983$, $RMSEA=.060$ 으로 연구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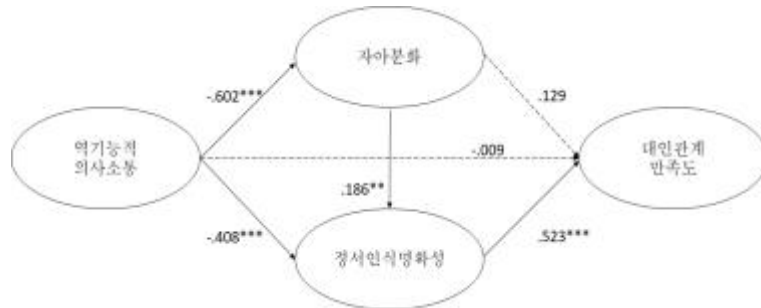
Note.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기능적 의사소통 모형의 경로와 경로계수

각 경로의 계수를 보면 기능적 의사소통이 자아분화에 ($\beta=.534$, $p<.001$)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인식 명확성에는 ($\beta=.539$, $p<.001$)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대인관계 만족도에는 ($\beta=.850$, $p<.001$)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기능적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자아분화와 정서인식 명확성,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아분화는 정서인식 명확성에 (β

=.151, $p<.05$)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대인관계 만족도에는 ($\beta=-.146$, $p<.01$)로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아지나, 자아분화가 낮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서인식 명확성은 대인관계 만족도에 ($\beta=.129$, $p<.05$)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역기능적 의사소통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X^2=99.705$ ($p<.001$), $df=38$, $TLI=.965$, $CFI=.976$, $RESEA=.069$ 로 연구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Note.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역기능적 의사소통 모형의 경로와 경로계수

각 경로의 계수를 보면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자아분화에 ($\beta=-.602$, $p<.001$)로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인식 명확성에는 ($\beta=-.408$, $p<.001$)로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낮을수록 자아분화와 정서인식 명확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대인관계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분화는 정서인식 명확성에 ($\beta=.186$, $p<.001$)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대인관계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인식 명확성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beta=.523$, $p<.001$)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매개효과 검증

기능적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만족도에서 자아분화는 95% 신뢰구간에서 $-.190 \sim -.027$ 의 상한 값과 하한 값을 보이고 있어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자아분화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능적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만족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은 95% 신뢰구간에서 $.002 \sim .200$ 의 상한 값과 하한 값을 보이고 있어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정서인식 명확성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능적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만족도에서 자아분화와 정서인식 명확성의 이중매개는 95%신뢰구간에서 $.000 \sim .043$ 의 상한 값과 하한 값을 보이고 있어 0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기능적 의사소통 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Path				Estimate	S.E	95% CI		
						lower	upper	
기능적 의사소통	→	자아분화	→	대인관계 만족도	-.098**	.042	-.190	-.027
기능적 의사소통	→	정서인식 명확성	→	대인관계 만족도	.088*	.049	.002	.200
기능적 의사소통	→	자아분화	→	대인관계 만족도	.013	.010	.000	.043
		정서인식 명확성						

* $p < .05$, ** $p < .01$, *** $p < .001$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만족도에서 자아분화는 95% 신뢰구간에서 $-.296 \sim -.001$ 의 상한 값과 하한 값을 보이고 있어 0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만족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은 95%신뢰구간에서 $-.589 \sim -.216$ 의 상한 값과 하한 값을 보이고 있어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정서인식 명확성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만족도에서 자아분화와 정서인식 명확성의 이중매개는 95% 신뢰구간에서 $-.197 \sim -.024$ 의 상한 값과 하한 값을 보이고 있어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자아분화와 정

서인식 명확성은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만족도에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역기능적 의사소통 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Path				Estimate	S.E	95% CI		
						lower	upper	
역기능적 의사소통	→	자아분화	→	대인관계 만족도	-.132	.077	-.296	.001
역기능적 의사소통	→	정서인식 명확성	→	대인관계 만족도	-.362***	.093	-.589	-.216
역기능적 의사소통	→	자아분화 정서인식 명확성	→	대인관계 만족도	-.100**	.045	-.197	-.024

* $p < .05$, ** $p < .01$, *** $p < .001$

IV. 결론

본 연구는 초기성인기를 만 18세부터 만 28세까지로 한정하여 347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유형을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대인관계 만족도와 자아분화, 정서인식 명확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의사소통 유형과 대인관계 만족도와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초기성인기의 대인관계에 있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심리적 특성을 찾아 검증함으로써 관계 형성 및 만족감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성인기의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대인관계 만족도 향상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의사소통 유형, 대인관계 만족도, 자아분화, 정서인식 명확성에 대한 연구의 주요한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의사소통 유형을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다른 주요 변인들인 자아분화, 정서인식 명확성,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 변인들이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의사소통 유형 중 기능적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만족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만족도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Satir(1972)의 연구와 일치하며 국내 선행연구(김향숙, 김혜경, 2019; 송지영, 2020; 이준형, 2014; 정은미, 2013)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Felicia J. Tuggle, Jennifer Kerpelman & Joe Pittman(2016)의 연구처럼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높은 대인관계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가진 사람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가진 사람보다 높은 대인관계의 만족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대인관계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람의 의사소통 유형을 탐색하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갖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능적 의사소통과 자아분화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자아분화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곽선주, 2011; 김정은, 2006; 유선희, 함경애, 2014; 이윤형, 2015)와 일치하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자아분화의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송은진, 2010)처럼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한다는 것은 낮은 자아분화 수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은 자신의 감정 혹은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면서 나타나는 유형들이기에 특히, 자신의 감정에 대한 무시나 외면함에 따라 자아분화 수준에 부적 관계를 갖는다고 보인다. 반대로 자신의 정서를 잘 알고 전달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은 정적인 상관을 보이게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능적 의사소통과 정서인식 명확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정서인식 명확성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조은숙, 2015)와 일치하며,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하기 위해선 스스로 느끼는 정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아분화는 대인관계 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이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들(김경진, 2013; 김혜림, 2015; 박영호, 2006; R. Sohrabi., M. Asadi., H. Habibollahzade., A. PanaAli., 2013)과도 일치한다. 분화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만족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정서인식 명확성은 대인관계 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인식의 수준이 높으면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박경옥, 2006), 다른 선행연구들(권지혜, 2010; 김희경, 2012; 이건화, 양난미, 2018; 정지은, 2016; 최문정, 이수림, 2019)과도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자아분화 정서인식 명확성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아분

화 수준이 높고 낮음이 정서에 대한 인식이나 주의에 대한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선행연구(박희룡, 2015; 이유나, 2019; 조민경, 2020)와 일치한다. 자아분화 수준과 정서에 대한 명확성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보인다. 이는 정서인식 명확성이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미분화된 정서와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명확하지 않는 자아경계를 보이는 양상과 상당한 유사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Schwartz, 1987; Stevens & Mayer, 1994).

둘째,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가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아분화는 기능적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 부분매개효과를 가져 기능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적 메시지와 소통되어지는 메시지가 일치하여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사고와 감정을 균형 있게 함으로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는 자아분화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아 자아분화가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학교적응에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연구(유선희, 함경애, 2014)와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기능적 의사소통은 자아분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아분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가설과 같이 의사소통 유형이 자아분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긍정적 의사소통 유형을 할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남연희, 2008, 유선희, 2013).

자아분화가 대인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자아분화 수준에 따라 주변의 환경 및 타인과의 관계를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자아분화가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김수연, 2001; 권정란, 이인수, 2006; 박수선, 1996; 박은희, 2011; 정혜경, 조은경, 2007; 제석봉 1989; 한영숙, 2007, 나남숙, 이인수, 2017)과 이성관계 및 연애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은선, 2019, 조은빈, 2018; 조은애, 2017)과 유사하다.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지면 자신에 사고와 감정에 균형감을 가져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하나, 자아분화 수준이 떨어질수록 자율성이 부족하여 타인에게 쉽게 융합되려는 경향이 나타나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형성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아분화의 수준을 대인관계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셋째,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서인식 명확성은 기능적 의사

소통이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며,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의사소통이 정서인식 명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황용재, 2019; 윤화원, 2018; 조은숙, 2015)과 일치하였다. 이는 전달하는 내용과 정서가 일치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의 선행 과정임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정서에 대한 인식수준이 대인관계에 있어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정서인식이 빠른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에 적절히 반응하고, 타인에 대한 정서인식을 원활하도록 도와 타인의 정서에 대한 공감능력을 높이고, 타인의 대한 정서인식을 원화하도록 도와 타인의 정서에 대한 공감능력을 높이고, 타인의 기분과 감정을 정확하게 판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적절한 대처를 통해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이경희, 2010). 정서인식 명확성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정서인식의 수준이 높으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유의미하다는 선행연구(권지혜, 2010; 박경옥, 2006)와도 일치하며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이진영, 2017; 문은주, 2011; Dizen, Berenbaum, & Kerns, 2005)과도 일치한다. 이처럼 정서인식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대인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한 변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은 관계 안에서 자신의 참된 정서를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와 정서인식 명확성의 이중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아분화와 정서인식 명확성은 기능적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만족도와의 관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기능적 의사소통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아분화와 정서인식 명확성을 각각 매개효과를 가졌으나, 이중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각각의 변인들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자아분화와 정서인식 명확성은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만족도와의 관계를 이중매개하는 것에는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정서인식 명확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높은 정서인식 명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이유나, 2019)와 일치했다. 생각해 볼 것은 자아분화만으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갖기 않았지만, 자아분화와 정서인식명확성은 이중매개효과는 가진다는 점이다. 자아분화가 영향을 가지긴 하지만,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대인관계 만

족도에 영향을 가짐에 있어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중요성이 보다 높다고 생각된다. 이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유형을 가진 내담자를 상담할 시에 적절한 자아분화 수준을 형성하도록 하며, 자신의 정서인식에 대한 명확성에 보다 강조를 하며 상담을 진행하면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유형을 사용하는 내담자가 대인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추측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성인기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상담현장에서 내담자의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접근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초기성인기 내담자의 대인관계의 낮은 만족도가 주 호소문제인 경우에 의사소통 유형을 분석하여 내담자가 갖고 있는 역기능적인 네 가지 대처유형 제거하고 전달하는 내용과 정서가 일치되게 사용하도록 하는 일치형의 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 대인관계의 만족을 향상하도록 도울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분화와 정서인식 명확성 같은 심리적 요인들로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의사소통 유형이 대인관계 만족도와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있으나 매개 변인들을 살펴보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상담 장면에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해 낮은 대인관계 만족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정서적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고 정서를 알아차리게 하는 전략을 세우고 개입한다면 보다 나은 대인관계 만족도를 얻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내담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인식 정도를 향상시켜 간다면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런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를 통해 자아분화와 정서인식 명확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 셋째,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서인식 명확성이 모두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통해 어떠한 의사소통 유형을 가지든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알아차리는 것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처럼 정서인식 명확성과 대인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는 연구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리도록 돕고 타인의 정서를 알아차리도록 돕는 상담전략을 통해 내담자의 대인관계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겠다. 넷째, 대학이나 직장 등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낮은 대인관계 만족도가 주 호소인 초기성인기와의 상담현장에서 대인관계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기술 및 프로그램 개발에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분화, 정서인식 명확성 같은 변인들을 기초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더욱이 최근과 같은 코로나 19를 통해 관계 단절을 통해 관계 만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초기성인기의 내담자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초기성인기를 만 18세에서 만 28세까지로 한정하여 진행하여 초기성인기 전체로 일반화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다 넓은 의미의 초기성인기에 대한 연구로 일반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Levinson 등(1978)의 연구에 따른 발달단계에 의거하여 17세에서 40세까지를 초기성인기로 정의하여 보다 확장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과 그 외의 초기성인기 간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사회 문화적인 현상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어 서울,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전국적으로 설문이 가능하였으나 지역별 답변 차이가 크다는 한계가 있다. 환경적 요소는 사람의 의사소통 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며, 자아분화 역시 환경적 영향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변인이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지역별 설문을 더 확대하고 거주지와 출생지역을 구분해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게 되며 응답자의 반응수준이 실제와 다르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교회 및 종교단체로 설문이 전달된 경로가 있는데, 이에 종교적 특성이 반영되어 답변 상에 자기보고를 실제 자신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면접 및 관찰 등의 직접적인 측정방법이나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변인을 폭넓게 살펴보지 못하였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하위유형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회유형'이 .822, '비난형'은 .794, '산만형'은 .755로 적절한 신뢰도를 나타냈으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초이성형은 .538로 낮은 신뢰도를 보여 일치형을 기능적 의사소통으로,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을 묶어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면 보다 다양한 경로 간 차이가 예상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의 5가지 유형의 신뢰도를 각각 확보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의사소통 유형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에 자아분화와 정서인식 명확성을 매개변인으로 연구하였으나, 현대사회에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에 대한 중요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을 찾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변인들을 연구하므로 관계가 중요한 초기

성인기 시기에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소영(2009).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전략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선주(201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고교생의 또래애착 및 사회불안에 미치는 효과: 자아분화의 매개 역할.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경인, 정미정(2017). 부모의 정서적 학대가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기체계 손상과 부적응적 분노대처행동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4), 389-407.
- 권석만(1997).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학지사.
- 권석만(2010). 인생의 2막 대학생활. 서울:학지사.
- 권지혜(2010). 정서인식의 명확성, 대인관계만족도, 정서적 안녕감의 구조적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진희(2006).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표현성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진희(2011).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표현성 및 대인관계와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4(1), 37-49.
- 김경주, 김영혜(2014).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의 부부갈등이 현재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1), 221-221.
- 김정진(2013).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일, 남지은, 박소영, 장정현, 김나영, 오정수, & 김명찬(2014). 초등학생 다중지능 척도 타당화 연구: 흥미-능력 2차원 검사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5(1), 71-92.
- 김란희(2014). 고등학생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방과 지각된 반응성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10). 자아분화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조영주(2018).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건설적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3(4), 567-588.
- 김영애(역).(2004). 사티어 모델: 가족치료의 지평을 넘어서.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 김종운, 정은미(2018). 대학생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의사소통 유형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 619-636.
- 김향수, 김혜경(2019). 대학생의 성격강점과 의사소통유형이 대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36(3), 700-709.
- 김현정, 강미영(2020). 성인초기 자기자비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1(3), 2035-2048.
- 김혜림(2015).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과 갈등 해결전략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2012).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이성관계 만족도에서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 명확성과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남숙, 이인수(2017). 자기분화, 결혼만족도, 헌신과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적용. 한국가족치료학회 가족과 가족치료, 25(1), 115-135.
- 남순현, 전영주, 황영훈(공역)(2005). 보웬의 가족치료이론. 서울: 학지사.
- 문선모(1980). 인간관계훈련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일 연구. 경상대논문집, 19, 195-204.
- 박영호(2006). 한국적 부모-자녀관계가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부자유친성정, 애착, 우리의식, 자아분화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희룡(2015). 대학생 성인아이 특성과 정서인식 명확성, 자아분화, 스트레스 대처방식, 커플관계탄력성의 관계.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아름, 임수진(2019). 기혼자의 정서인식 명확성과 조망수용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9(3), 22-30
- 송민선, 송준(공역)(1988). 가족의사소통의 새로운 기법-사람 만들기의 가정공학. 서울: 흥익재.
- 송은진(2011). 가족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의사소통유형과 자아분화수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지영(2020). 미혼커플 자아상태와 의사소통 유형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혜숙, 이상순(1998). 심리경향에 따른 의사소통유형 분석-Jung과 Satir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유형학회, 5(1), 1-24.
- 우종필(2015).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다차원성 개념의 항목묶음 편향에 대한 연구. 경영학연구, 44(4), 1,131-1,147.
- 유선희, 함경애(2014).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2(2), 421-439.
- 윤태교(2017). 20대 성인 남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자기분화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4), 75-98.
- 윤화원(2018). 대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명확성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건화, 양난미(2018). 대학생의 성인 애착 불안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 정서인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9(2), 83-105.
- 이경희, 김봉환(2010).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조절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명확성, 정서강도 및 정서주의의 군집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22(2), 369-384.
- 이루진(2008).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 흥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유나(2019). 어머니의 자아분화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영(2015).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대인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선(2019).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이성 관계 만족도의 관계: 자아분화와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 신현숙(2016). 부모기대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교사-학생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정서인식과 정서조절의 중다매개효과. 한국아동교육학회 아동교육, 25(2), 293-312.

- 이정미(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과 의사소통 유형이 자녀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준형(2014). 대학생의 갈등관리 유형과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영(2017). 대학생의 정서인식 명확성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선, 정혜정(201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1), 99-121.
- 임주현(역)(2002).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서울: 문학사상사.
- 장정수(2020). 중년남성의 의사소통역량, 대인관계 만족도,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천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지은, 손은정(2013).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이성관계 만족도 사이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역할: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상담학회, 17(5), 399-420
- 정은미(2013). 대학생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의사소통 유형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문자(2003).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 정재완(2016). 성인애착 및 자아분화와 결혼만족도의 관계: 성적·정서적 친밀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심리유형과 인간발달. 1-21
- 조규판, 우수희, 송근혜(2012).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자아탄력성 및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 30(4), 59-80.
- 조민경(2020). 상담자의 자기분화와 역전이 관리능력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소영, 김진숙(2020). 아동기 외상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과 감정표현 불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3), 323-352.
- 조영주(2017).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프로파일 수준 및 형태 유사성이 미혼 커플의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8(1), 23-44
- 조은애(2017).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유기불안과 연애관계 만족도의 관계: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나윤, 이영호(2018). 아동기 외상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 도식과 자기개념 및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3), 137-166.
- 최문정, 이수림(2019). 정서인식 명확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수용의 매개효과. 한국컨텐츠학회 논문지, 19(1), 608-622.
- 추미례, 김정희(2006).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특성분노, 분노사고 및 분노표현에 대한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023-1039.
- 황용재(2019). 청소년기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Dizen, Berenbaum, & Kerns(2005). Emotional awareness and psychological needs. Journal Cognition and Emotion, 19(8), 1140-1157.

- Felica, J. Tuggle, Jennifer Kerpelman, & Joe Pittman (2016). Young Adolescents' Shared Leisure Activities With Close Friends and Dating Partner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8(5), 374-394.
- Gohm, C. L.(2003). Mood regul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3), 594-607.
- Gohm, C. L., & Clore, G. L.(2000).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al experience: Mapping available scales to process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6), 679-697.
- Gottman, J. M. & Lewenson, R. W.(1986). Assessing the role of emotion in marriage. *Behavioral Assessment*, 8(1), 31-48.
- Jacobson, N.S.,& Christensen,A.(1996). *Integrative Couples Therapy: Promoting acceptance and change*. New York: Norton.
- Lifton(1993). *The Protean Self : Human resilience in an age of fragment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linckrodt, B.,& Wei, M.(2005).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358-367.
- Marsh, H. W.(199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s of factorial invariance: A multifaceted approac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 5-34.
- R. Sohrabi., M. Asadi., H. Habibollahzade., A. PanaAli.(2013). Relationship Between Self- differentiation in Bowen's Family Therapy and Psychological health.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84(9), 1773-1775.
- Russell, Daniel W, Kahn, Jeffrey H, Spoth, Richard, & Altmaier, Elizabeth M.(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
- Salovey, P., & Mayer, J. D.(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ee, Turvey, C., Palfai T. P.(1995). Emotion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W. Pennebaker(Ed), *Emotion, disclosure, & health*, 125-154.
- Schwartz(1987). Toward A Universal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3), 550-562.
- Stevens & Mayer(1994). An emerging understanding of the reflective (meta-) experience of mood.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3), 351-373.
- Swinkels, A., & Giuliano, T. A(1995). The measurement and conceptualization of mood awareness: Attention directed toward one's mood sta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934-949.

〈Abstract〉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Type of Early Adulthood on Interpersonal Satisfaction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Emotional Awareness -

Park, Se-jin · Hong, Hye-Young
Guro-gu Counseling and Caring Center for Youth ·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Emotional Awar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Type of Early Adulthood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To achieve thi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conducted on a total of 347 participants between the ages of 18 to 28, utilizing measures of Communication Type, Interpersonal Satisfaction, Self-Differentiation and Emotional Awarenes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for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Additionally, AMOS 21.0 was employed to validate measurement models, structural models and mediating effects. As a result, first, Functional Communication exhibit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Interpersonal Satisfaction, Self-Differentiation and Emotional Awareness, while Dysfunctional Communication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these variables. Self-Differentiation and Emotional Awareness exhibit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they also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each other. Second, the results of medi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Functional Communication had a direct effect on Interpersonal Satisfaction, with Self-Differentiation acting 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unctional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Emotional Awareness also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unctional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but Self-Differentiation and Emotional Awareness did not have a dual mediating effect. Conversely, Dysfunctional Communic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Emotional Awareness mediating effect on this relationship. Self-Differentiation did not show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ysfunctional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but Self-Differentiation and Emotional Awareness had a dual mediating effect in this relationship.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ts limit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Early Adulthood, Communication Type, Interpersonal Satisfaction, Self-Differentiation, Emotional Awareness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통합치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과 관련된 연구 활동의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과정을 정직하게 수행해야 한다. 연구과정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디자인의 설계,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호, 결과의 분석, 연구 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이 포함된다.

- ② 연구자는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중복 게재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 ③ 본 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연구 수행 시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기관과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과정, 및 결과보고 등의 연구전반에 걸친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 되게 수행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한다.
- ③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존중한다.

제4조 (연구 부정행위) 본 학회의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학회지 발간 이후 적발 시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물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행위
- ② 변조: 연구결과물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③ 표절: 본인이나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물을 원저자 승인 없이 인용, 또는 참

조 없이 도용 하는 행위

- ④ 중복게재: 1)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없다.
2)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신청할 수 없다.

제5조 (연구 참여자 보호) 연구자는 각자의 연구 활동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신적,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시행 전 반드시 연구 참여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연구 절차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동의를 받는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학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이 심의대상자아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당 심의 건에 대한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여 그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연구윤리심의규정) 윤리위원회는 아래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그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①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심의
② 본 학회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사항 심의
③ 연구의 진실성 검증, 검증 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④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와 심의대상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

위원회는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해당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2) 해당 연구자의 논문 투고 3년간 금지
-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 5) 제명
-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첨 2>

투고규정

가. 투고논문의 범위는 놀이치료, 상담심리, 언어치료, 예술심리치료, 음악치료 및 심리상담적 이론과 접근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시각의 연구 및 관련 주제를 다룬국문 또는 영문 논문으로서 투고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 이상으로 한다. 단, 논문 등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여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나. 투고논문 제출은 e-mail을 통해 파일을 전송한다. 원고작성 시 투고규정에서정한 “논문 작성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 원고분량은 논문작성지침에 의거한 규격용지 기준 국문원고 15매, 영문원고 20매로 제한한다.

라.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를 저자표기 가장 앞부분에, 나머지 연결저자는 논문집필의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마. 투고 시 원고 겉면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e-mail을 포함한 연락처를 명기하며,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바.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통합치료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 불가판정 논문에 한해서는 일체의 심사내용을 통보하지 않는다.

사. 투고시 심사비 8만원(급행논문 심사비 12만원), 게재 확정시 10만원(15쪽 기준)을 납부하며 15쪽(본 학술지의 편집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쇄쪽당 1만원씩 추가 납부한다.

아. 본 학술지 원고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가 불가하다.

자. 『통합치료연구』 는 연2회 발간(2월 25일, 8월 25일)하고 있다.

차. 논문의 인쇄 용 최종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 이 논문의 저작권(디지털 저작권 포함) 과 전송권은 학회로 귀속된다.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통합치료연구] 투고 논문 작성 양식

1. 원고 작성 개요

가. 작성 도구: 한글 3.0 이상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나. 논문원고 용지

(1) 용지 종류: 사용자 정의(190×260)

(2) 용지 여백: 위쪽 18, 아래쪽 20, 왼쪽 26, 오른쪽 26, 머리말 10, 꼬리말 10, 제본 0

다. 문단 모양 : 줄간격 170

라. 글자 모양

	글꼴	크기	장평	자간	문단정렬	비고
제목	신명조	18p	100	0	가운데	진하게
저자명	중고딕	10p	100	0	오른쪽	1줄 띄고
소속	신명조	9p	100	0	오른쪽	
요약	중고딕	9p	95	-5	양쪽정렬	1줄 띄고 줄간격 140 좌우여백 :4
본문	신명조	11p	95	-5	양쪽정렬	
그림	중고딕	10p	95	-5	하단 가운데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명조
표	중고딕	10p	95	-5	왼쪽상단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명조
참고문헌 제목	견명조	14p	95	-5	가운데	
참고문헌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영문초록 제목	신명조	14p	95	-5	가운데	진하게
영문초록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부록제목	중고딕	10p	95	-5	왼쪽	진하게
부록내용	신명조	10p	95	-5	양쪽정렬	

마. 제목의 번호 붙임

- 1단계: I. II. III. (2줄 띄고, 14p, 견명조, 가운데)
- 2단계: 1. 2. 3. (1줄 띄고 3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진하게)
- 3단계: 가. 나. 다. (1줄 띄고 3칸에서 시작, 11p, 신명조, 진하게)
- 4단계: (1) (2) (3) (1줄 띄고 4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 5단계: ㄱ. ㄴ. ㄷ.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 6단계: (ㄱ) (ㄴ) (ㄷ)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바. 들여쓰기

문단의 첫 문장은 3칸에서 시작, 문장과 문장 사이는 1칸으로 하고, 문단과 문단사이에는 1줄 띄지 않는다(“참고문헌”의 들여쓰기는 9칸에서 시작함).

사. 용어의 사용

- (1)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적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 속에 원어나 한자를 쓴다.
- (2)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성 있는 단어를 연속하여 나열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단어 바로 앞에 쉼표 없이 “그리고”, “와(과)”, “및”, “혹은” 등을 삽입한다.

2. 인용 사항

본문에 인용문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단어 및 구두점 등의 모든 사항이 인용되는 원문과 일치되어야 하며, 그 인용부분의 길이에 따라 다음 규정을 지킨다.

가. 인용내용이 짧은(1-2행) 경우에는 본문 속에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기술하며, 인용내용의 끝에 인용출처(저자, 출판년도)를 밝힌다. 한 문장 내에서 내용을 축약하는 경우에는 반 칸을 띄운 후에 세 개의 공간점“...”을 사용한다.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홍길동, 2003)

나. 인용내용이 긴(3행 이상) 경우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이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와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띄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인용문의 출처는 “저자(출판년도)”를 먼저 밝히고 인용문을 적거나, 인용문 뒤에 “저자(출판년도)”를 표기한다.

예: 이승환(2005)은 언어병리학이 다학문적 학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수교육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등의 전문인들과 협력해야 하고, 나아가 의학의 여러 분야의 전문인들과 팀을 구성해야 할 장애유형도 많다. 그래서 상호 의뢰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3. 각주(脚註, footnote) 와 후주(後註, endnote)

가. 각주의 사용은 금한다.

나. 그 대신,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후주의 사용을 허용한다. 후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본문 내 해당되는 곳에 반 괄호를 붙인 어깨숫자로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본문의 가장 뒤, 참고문헌 바로 앞에 기술한다.

4. 본문 내의 인용문헌

가. 직접 인용의 경우: 인용부호(“ ”)를 달고 기술하며, 인용처(저자 및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예 1: 김영옥(2003)에 의하면 “.....”

예 2: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김영옥, 2003)

나. 간접 인용의 경우 : “저자”와 “출판년도”를 아래 예들과 같이 명기하되, 출판년도 표시의 괄호 앞 어절이 한글일 경우에는 괄호를 붙여 쓰고 (단, “참고문 헌” 에서는 반 칸을 띄어 쓴다), 영어인 경우에는 반 칸 띄고 쓴다.

예 1: 이 이론에 대하여 고도홍(2003)은.....

예 2: 이 이론에 대하여 Pinker(1975)는.....

예 3: 한 연구(고도홍, 1995)에 의하면.....

예 4: 최근의 연구(고도홍, 1995; Boone, 1990)에 의하면.....

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

- (1) 저자가 3인 이상 5인까지일 경우, 최종 저자 앞에 “및” 또는 “와/과”로 표기한다. 또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에는 한국인인 제 1저자의 성과 이름 뒤에 “등/외”를 표기하고, 외국인은 제 1저자의 성 뒤에 et al.을 표기한다.
 예: 김수진, 윤미선 및 김정미(2002)는... 첫 인용
 김수진 등(2002)은... 반복 인용
 Boone, Hodson & Paden(1995)은... 첫 인용
 Boone et al.(1995)은... 반복 인용
- (2) 6인 이상이면 제1저자만 기재하고 “000 외”나 “0000 et al.”등으로 표시한다.

5. 참고문헌 작성법

가.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한, 중, 일, 기타 동양, 서양 문헌 순으로 열거한다. 서양 문헌작성의 경우 여기에서 규정한 형식 이외의 것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에 따른다.

나. 저자는 저자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시한다. 영문 이름의 경우에는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첫 글자만(예: Kim, H. K.) 표시한다.

다. 동일한 저자가 같은 해에 낸 다수의 논문을 참고했을 경우에는 출판년도 뒤에 영문 소문자를 써서 구별한다.
 예: 2005a,

라. 단행본(연수회 교재, 발표회 교재 및 검사도구 포함)의 경우:

- (1) 국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1: 이승환(2005). 유창성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예 2: 심현섭, 신문자, 이은주(2004).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 (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 (2) 영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이탤릭체).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Van Riper, C. & Erickson, R. L.(1996). Speech correction: An introduction to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Needham Heights, MA: A Simon & Schuster

Co.

마. 단행본 속의 논문 또는 단원(chapter)의 경우:

- (1) 국문: 저자(출판년도). 논문[단원]명. 편집자[기관]명(편). 단행본명. 발행지: 발행처.
예: 김영태(2000). 조음음운장애 치료를 위한 임상이론.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편). 말·언어임상 전문요원교육: 조음음운장애 및 실어증 치료기법의 임상적 적용. 서울: 한학문화.
- (2) 영문: 위와 동일하나 출처인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아래 예와 같이 단행본저자의 이름을 표기하되, 단행본 저자가 1명인 경우에는 “(Ed.)”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Eds.)”로 표기.
예: Beeson, P. & Hillis, A.(2001).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written words. In R. Chapey(Ed.), Language intervention strategies in aphasia and related neurogenic communication disorders(4th ed.). Baltimore, M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3) 단행본이 재판(再版)이상 : 단행본명 뒤의 ()안에 “3판” 혹은 “3rd ed.” 등으로 표기.

바. 정기간행물(학술지) 속의 논문의 경우:

- (1) 국문: 저자(출판년도). 논문명. 논문수록 학술지명, 권(호) 번호, 페이지.
예: 장빛나, 김수지(2009). 타악기를 이용한 음악 활동이 유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13-226.
- (2) 영문: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논문수록 학술지명(이탤릭체), 권(호), 페이지.
예: Kim, S. J.(2010). Music therapy protocol development to enhance swallowing training for stroke patients with dysphagia. Journal of Music Therapy, 57(2), 102-119.

사. 학위논문의 경우

- (1) 국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위수여대학. 학위명.
예: 김민정(2004). 아동용 한국어 조음검사의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 병리학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 (2) 영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명(이탤릭체). 학위명, 학교명 및 학교소재지. 단,

석사논문은 “master's thesis”로, 박사논문은 “doctoral dissertation”으로 표기한다.

예: Sim, H. S.(1996). Kinematic analysis of syllable repetition and sound prolongation in children who stutt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아. 번역서의 경우

(1) 원저자명(출판년도). 번역서명[원전의 제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 표기]. (역자명). 번역서의 출판지: 번역서의 출판사명.

예 1: 정옥란(역)(1993). 음성과 음성치료. 대구: 배영출판사.

예 2: 이승복, 한기선(공역)(2000). 의사소통 과학과 장애: 과학에서 임상실습까지. 서울: 시그마프레스.

자. 연수회, 특강 또는 학술대회 자료의 경우

(1) 저자명(발표된 년도). 발표제목. 자료명. 발표장소.

예 1: 윤미선, 이봉원(2005). 한국어 어휘 특성에 따른 단어인식 검사에 대하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전북대학교, 전주.

예 2: Pae, S. & Yoon, H. J.(2005). Reading miscue analysis of the Korean second grader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ASHA) annual conference. San Diego, CA.

차. 기관이 저자인 경우:

(1) 국문 : 기관명을 저자로 명기(발행년도). 단행본명. 발행도시명: 기관명에 준하여 “동부”, “동 협회”, “동 학회” 등으로 표기.

예: 문화관광부(1999). 교과서의 어휘 분석연구 -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서울: 동부.

(2) 영문 :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발행처가 저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발행도시명: 을 적은 후에 “Author”라고 표기.

예: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th ed.). Washington, DC: Author.

6. 표, 그림 및 부록

가. 표, 그림 및 부록에는 일련번호를 각각 붙이되, < >를 사용한다. 표와 그림은 본문 안에 삽입하고 부록은 참고문헌 뒤에 삽입한다.

예: <표 1>, <그림 1>

나. 표 및 부록의 제목은 상단 왼쪽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 중앙에 붙인다.

다. 표, 그림 및 부록을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때, 표와 부록의 경우에는 하단 왼쪽에, 그림의 경우에는 하단 중앙 제목 밑에 출처를 명기한다.

라. 부호를 사용할 때의 글씨체 및 띄어쓰기는 다음과 같다.

(1) p, F, t는 신명조체의 이탤릭체로 쓴다. 단, M, N, SD는 신명조체의 정자체로 한다.

(2) 부호 사이는 반 칸 띄어 쓴다(예: $p<.001$, $F(1,129)=2.71$, $t=4.52$).

(3) *는 윗 첨자의 형태로 통계표 안의 t값과 표 밑의 p값을 제시할 때 쓴다.

(예: *t, * $p<.05$)

마.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값은 표 하단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재한다. (예: $p=.003$)

7. 초록

가. 한글 논문의 경우

(1) 한글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한글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2) 영문초록: 10줄 내외의 영문초록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3) 핵심어: 3-5개의 핵심어를 한글초록과 영문초록 밑에 쓴다.

나. 영문 논문의 경우

(1) 영문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영문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2) 한글초록: 1쪽 이내의 한글초록(한글제목, 한글이름, 한글소속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3) Key Words: 3-5개의 핵심어를 영문초록과 한글초록 밑에 쓴다.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통합치료학회(The Korean Society of Interdisciplinary Therap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 예술심리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치료학의 발전 및 회원의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당해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 본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심리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3. 학술지 발간
4. 학회발전을 위한 교육
5.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
6.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심리치료, 놀이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가족치료, 예술심리치료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준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 전공 석사과정 중인 자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소유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평생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서 정회원이 운영 재직하는 기관 및 치료전문기관으로서 본 회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제7조 (입회 절차)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원서 제출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3.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권리
4.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본 학회의 각종 출판물을 받을 권리
6. 기타 학회에서 인정한 권리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석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본 학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학회의 회장이 제명한다.

제12조 (회원의 자격 정지) 2년 이상(당해 연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제3장 임 원

제13조 (임 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총무 : 1명
4. 감사 : 2명
5. 학술위원장 : 1명
6. 학제 간 연구위원장 : 1명
7. 편집위원장 : 1명
8. 국제교류위원장 : 1명
9. 윤리위원장 : 1명
10. 홍보위원장 : 1명

제14조 (임원의 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여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하며 학회를 책임 운영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4장 기 구

제18조 (기구의 종류)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상임위원회

제19조 (총회)

1.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 결산의 보고

- 4) 규약 및 제 규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
2. 총회는 그 기능의 일부를 총회 의결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학술위원장, 학제 간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국제교류위원장, 윤리위원장, 홍보위원장으로 구성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 1) 회장과 감사를 총회에 추천한다.
 - 2)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의 자격을 심사 및 승인한다.
 - 3) 각종 규정 및 지도감독을 한다.
 - 4) 중요사업을 계획, 심의한다.
 - 5)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건의한다.
 - 6) 본 학회의 운영을 총괄 조정한다.
 - 7) 기타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3.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4. 기타 운영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5. 제 20조의 모든 사항은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제21조 (상임위원회)

1. 편집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학술지 발간 및 학술발표, 세미나 등 주관 및 교육
2. 국제교류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국제 교류 및 협력 주관 및 관리
3. 학제 간 연구 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 등의 다양한 치료분야간의 통합치료모델 연구

4. 홍보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대외협력 및 홍보

5. 학술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학술발표, 세미나, 교육특강 등 주관 및 교육

제5장 회 의

제22조 (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갖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2. 총회에서 투표권은 정회원, 평생회원에게 있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정회원, 평생회원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평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총회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운영위원회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재 정

제26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학회운영 수익, 및 기타 찬조비 등으로 충당한다.
2. 회원 자격별 회비(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등)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자격은 회비 납부 시까지 정지되며, 미납회비(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분 미납 연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4.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5. 본 학회 재정의 모든 입출금은 본 학회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27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은 2015년 3월 23일부로 시행한다.
3. 본 개정은 2017년 3월 23일부로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선우현(명지대학교)
편집위원 : 최예린(명지대학교)
박은선(명지대학교)
손보영(선문대학교)
이아라(경상대학교)
이상진(평택대학교)
박정환(제주대학교)
서근원(대구카톨릭대학교)
임지숙(명지대학교)

통합치료연구 제15권 제1호

2023년 8월 25일 인쇄
2023년 8월 25일 발행

발행인: 김은연 (한국통합치료학회장)
(우) 03674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국제관 4716호
Tel: 02-300-0882
E-mail: ksit@naver.com / ksit_journal@naver.com
인쇄처: 금성인쇄

이 학회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통합치료학회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